

How I Lost,
My Fear
of Death?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사후 세계가 있나요? 이에 대해 종교들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나요? ●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 영원한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 당신도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를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작 맥엘로이 지음 이정원 옮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지은이 / 잭 맥엘로이

1판 1쇄 / 2016년 3월 1일, 2판 1쇄 / 2023년 3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시 남동구 서창방산로83

전화: 032-664-1611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47-0 03230

5,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지음

How I Lost My Fear of Death?

—J. McElroy—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21년에 발행된 <강제임스 홈정역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길로 안내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라는 속박에 얽매어 살다가 결국 그 공포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을 비롯한 많은 영웅호걸들이 불로초 등을 구하며 무병장수를 꿈꾸었지만 결국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2017년경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프랑켄슈타인 수술법이 이탈리아의 카나베로 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시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무려 100억 원에 이르지만 아마도 많은 부자들이 이 수술을 받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사람을 죽음과 그 공포에서 영원히 건져 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주일 성수, 십일조와 헌금, 교회 봉사, 세례, 입교, 집사·권사·장로 등의 직분 수여 같은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 행위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인간들이 만든 헛된 종교 제도의 무기력한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도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상세하고 능력 있게 설명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미국의 책 출판사를 통해 <나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잃게 되었는가?>(How I Lost My Fear of Death?)라는 제목의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맥엘로이(Jack McElroy) 형제님은 천주교인으로 자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천주교 학교에 다니며 종교 교육을 받다가 27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직접 경험한 뒤 구원받은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성을 동원해 차분히 앉아서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맥엘로이 형제님이 발견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책의 내용이 명쾌하고 간결하기에 번역·출간을 위해 맥엘로이 형제님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한 책의 번역/출간을 허락해 주신 맥엘로이 형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침례교회 이청원 자매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전체를 번역해 주셨고, 김항수·김대용·김상진(울산) 형제님과 이청원·김현아 자매님이 꼼꼼히

교정해 주셨으며, 김재욱 형제님이 필요한 이미지를 찾고 전체를 편집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9쪽부터는 본서의 부록으로 <구원 방정식>, <구원의 방법·지식·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구원·전도 예화> 등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 자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원하며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4-17).

2016년 1월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 저자 맥엘로이 형제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성경을 사용하실까?>(Which Bible Jesus Would Use?)라는 제목으로 성경 역본들에 관한 좋은 책도 썼습니다. 아마존이나 chick 출판사(www.chick.com), 혹은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딴 맥엘로이 형제님의 웹사이트(www.howilostmyfearofdeath.com)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라고 치면 이 책의 핵심을 담은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론 10

종교의 궁극적 가치는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을 얼마나 확실하고 완벽하게 벗어나도록 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죽음 뒤에 또 다른 좋은 세상이 있는지
 - 만약 있다면 그곳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1. 당신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2

대부분의 종교들이 알려 주는 '행복한 사후 세계에 도달하는 비법'을 보여 주기 위해 이슬람과 카톨릭을 비교합니다.

2. 사후 세계가 있나요? 이에 대해 종교들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18

카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가 이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봅니다.

3. 예수님이 없는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나요? 40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불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봅니다.



4.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나요? 55

성경에 찬사를 보내는 토머스 제퍼슨, 헬렌 켈러, 패트릭 헨리, 다니엘 웹스터, 노아 웹스터, 그리고 성경을 맹렬히 비난하는 리처드 도킨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아이작 아시모프,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마크 트웨인)의 인용구를 소개합니다.

5.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63

성경이 왜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그리고 성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살펴봅니다.

6. 저는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이겨 냈습니다. 74

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제가 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7.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87

종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8. 당신도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94

죽음의 공포를 떨쳐 버릴 수 있는 단계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저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즉시 벗어나십시오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나 정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는 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 가치는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을 얼마나 확실하고 완벽하게 벗어나도록 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이것에 대한 답이 영원한 생명 또는 그와 비슷한 약속이라고 가정한다면,

2. 그 약속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내세에 더 좋은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의식이나 일들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얼마만큼 또 언제까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끔 몹시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은 보통 누군가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식의 강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교 자유 의지론자이기 때문에 누구

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혹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신앙 체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잃는 것은 삶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내버려 두며 결국 그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잔뜩 주지만 행복한 사후 세계로 입성하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러닝머신 위를 끊임없이 달려야 하며,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마음은 다른 이들에 의해 당신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아가게 놔두지 마십시오.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며 자유를 빼앗는 것은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짧은 책에서 저는 제 믿음과 그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담긴 정보가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듯이 당신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 2013년 8월, 잭 맥엘로이



1장

당신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압니다. 저도 죽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는 아무도 당신에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소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계속되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976년, <롤링스톤>지는 록밴드 블루 오이스터 컬트(Blue Oyster Cult)의 ‘추수꾼¹⁾’을 두려워하지 마(Don't Fear The Reaper)’를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 곡을 ‘역대 최고의 노래 500곡’ 목록에 397번째 곡

1) 죽음의 사자를 가리킴

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노래는 죽음의 필연성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나타낸 곡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하고 있어.”라는 가사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노래는 계속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로 와 (추수꾼을 두려워하지 마).

내 손을 잡아 (추수꾼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날 수 있을 거야 (추수꾼을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남자야.



이 밴드의 멤버들처럼 몇몇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좋은 의미의 사후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멋진 일이지요. ‘죽으면 자동으로 살기 좋은 사후 세계로 들어간다.’ 당신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도나 유니테리언 교도로 자랐다면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생활을 확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당신의 두려움을 잠시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각이 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죽음에 대한 당신의 공포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무지나 미신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그러한 생각에 반신반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부정적이고 암울하며 절망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식과 연역적 추리 또한 신이 있다는 것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연역적 추리란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풀어 나가는

논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화로 시작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교한 창조물들과 질서 있게 자리 잡은 자연환경이 합창하듯 신의 존재를 외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신을 부정했던 이유는 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운영하는 어느 웹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음으로부터 살아남기를 바라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지침은 아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염려를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런던의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석한 캠페인 창안자 아리안 셰린(Ariane Sherine)과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그 글의 저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안감을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의 공허한 희망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 자신들의 입장조차 증명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더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카톨릭 신자로 자랐든 그 밖에 개신교, 동방 정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신자로 자랐든 모든 종교들이 하나의 핵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교들은 예외 없이 죽음 이후의 행복한 삶(또는 불교의 열반/평화)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들'을 행해야(Doing)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마법의 공식

모든 종교의 기본인 이 마법의 공식은 다음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1. 신을 믿어라(만약 힌두교 신자라면 신들).
2. 특정한 법을 지켜라.
3. 특정한 종교 의식을 준수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지혜의 다섯 기둥

1. 믿음의 고백을 하라(Shahada):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하고 그 신은 알라이며 무함마드(마호메트)는 그의 대언자(선지자)이다. (그나저나 알라는 아들이 없는 신입니다. 나중에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2.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라(Salat).
3.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Zakat).
4.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라(Sawm).
5.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라(Hajj).

만약 당신이 로마 카톨릭 신자라면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7대 성사

하나님과 그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믿는 것과 교회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성사 혹은 성례(Sacraments)라고 알려진 특정 의식들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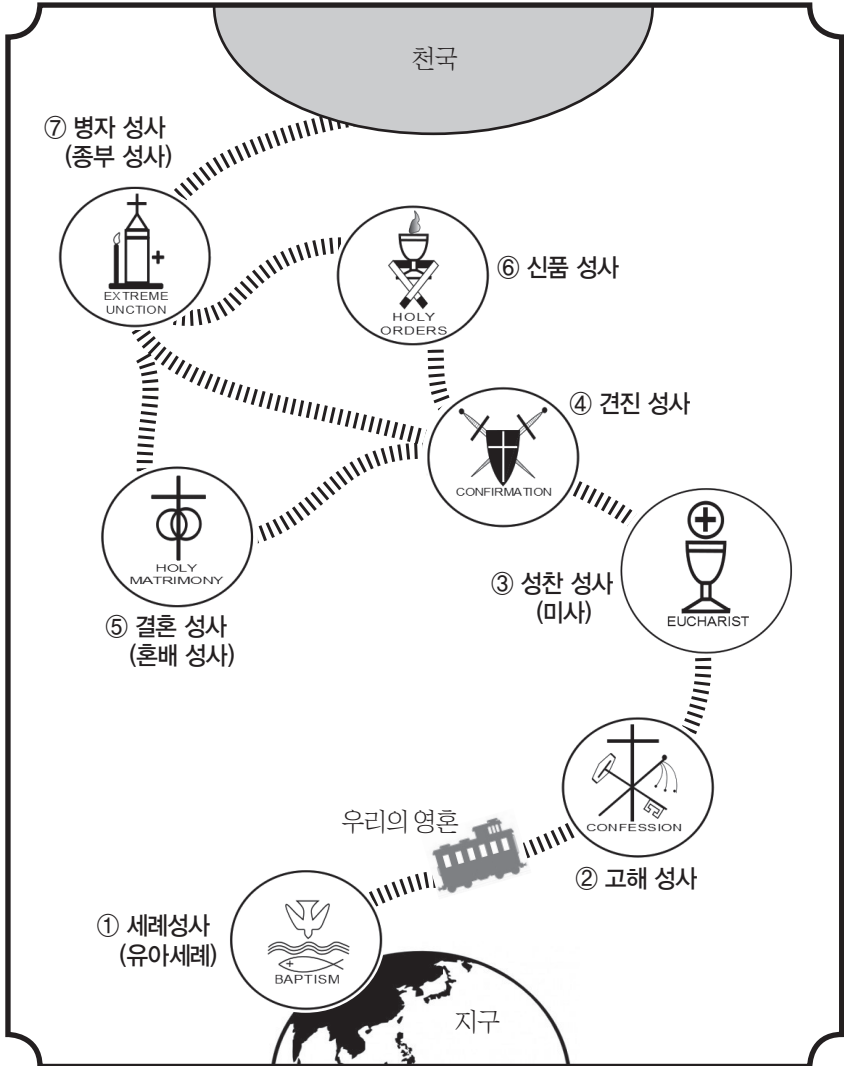
1. 세례 성사
2. 고해 성사
3. 성찬 성사(미사)
4. 견진 성사
5. 결혼 성사
6. 신품 성사(이것을 통해 남자가 주교, 신부 또는 집사로 임명됩니다.)
7. 병자 성사(또는 중부 성사)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오래전에 출간한 <볼티모어 교리 문답서>를 보면 이 절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오른쪽 그림 참조).

결국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들이 처방해 준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무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기 위해 도입한 천주교의 7대 성사



천주교에서는 이 일곱 가지 '발전소'들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만들어 줍니다.



2장

사후 세계가 있나요? 이에 대해 종교들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몇 몇 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여하튼 어떤 종류의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 이 사상은 아예 신을 믿지 않으며 인본주의자 선언문 제 2조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인간은 자손의 번식을 통해 우리의 문화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라고 서술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선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만 한다.”

미국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듀이(John Dewy, 1859-1952)가 1933년에 인본주의자 선언문에 최초로 서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개의 선언문과는 달리 첫 번째 선언문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본주의가 이전의 종교들을 초월하고 대체하는 종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미국의 ‘국교’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는 신이 없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도교는 수많은 신들과 여신들을 인정하며, 사후 세계보다는 현세에 초점을 둡니다.

신도교는 ‘신들의 길’을 뜻하는 종교로서 많은 일본인들의 종교적 신조 체제입니다.

신도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교리가 없습니다. 신도교는 현세에 집중하며 인간의 본질적 선을 강조합니다.

일본에는 “신도교 신자로 태어나 불교 신자로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선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세에서의 삶의 도덕성을 가르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본주의, 유교, 도교, 그리고 신도교는 사후 세계를 경시하거나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특정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 외에 주요 종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율을

알려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교들을 한 곳에 펼쳐 놓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지요.

저는 로마 카톨릭교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수녀들이 가르치는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 있는 로즈 호손 센트럴 카톨릭 학교에 다녔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도 콘코드에 있는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 학교에서 예수회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자 성사와 신품 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받았고, 매사추세츠주 그로톤에 위치한 성심교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신의 은총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적어도 연옥에 갈 정도는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떨쳐 버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먼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하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 기도문 암송하세요, 특정한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특정 성사를 받으세요, 선한 사람이 되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세요, 신에게 당신의 고통을 바치세요... 등등.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목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카톨릭도, 개신교도, 그리스 동방 정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모두 그것들만의 '행위'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 이후의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것들 중 어느 종교도

당신이 어느 정도면 충분히 행했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물론교, 여호와와의 증인, 동방 정교, 개신교, 로마 카톨릭 포함) 당신은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거나 죽음 이후의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둘째로 선한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이나 특정한 교회 또는 조직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본 적 있나요? 몇 퍼센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몇 퍼센트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로마 카톨릭 신자라면 어떨까요?

로마 카톨릭은 10억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카톨릭 신자로 자라지 않았다면 성인 기독교 입문 의례를 통해 개종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존 웨인, 게리 쿠퍼, 페이 더너웨이, 수잔 헤이워드, 그리고 코미디언 밥 호프가 유명한 카톨릭 개종자들입니다.



저 자신이 카톨릭 신자로 자랐으니 카톨릭교회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도록 가르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카톨릭교회의 공식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CC)에 의하면, 당신은 ① 믿음 ② 세례 ③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트렌트 공회(1545-1563)는 십계명은 크리스천의 의무이며 의롭게 된 사람도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1962-1965)도 “사도의 후계자이며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주교는 (중략) 믿음과 세례, 그리고 계명 준수를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CCC 2068)라고 확증합니다.

트렌트 공회는 오래된 카톨릭교회의 교리를 성문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 + 행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준다는 가르침은 지난 4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발견한 다음의 작은 카드는 혼을 구원하기 위한 카톨릭교회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성야고보 교회

웨스트 그로튼, 매사추세츠주

오스카 오고르만 목사

1941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당신의 혼을 구원하세요!

1.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2.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믿음, 소망,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취침 전에 양심을 살펴보고 회개하십시오.
3. 매주 일요일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축일마다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4. 만약 당신의 교구에 선교회가 있다면 적어도 한 개의 선교회에 가입하십시오.
5. 당신은 죄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당신은 ‘죄의 원인’을 피할 의무가 있으며 죄의 원인이란 당신을 죄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공간 그리고 물건을 말합니다.
7. 매일 성모 마리아에게 헌신하며 특히 평안한 죽음을 위해 그녀에게 기도하십시오.
8.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녀들은 제계 성사를 받고 하나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제가 작은 죄(소죄)를 지은 채로 죽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알 수 없는 기간을 연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약간은 말이 되는 듯 보입니다.

죽은 뒤에 고통을 당함으로 죄값을 치른다는 연옥의 개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제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용어 색인 검색을 통해 '연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지 꼭 찾아보십시오. 절대 그 단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략 79만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중에 단 한 개도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당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한다는 뜻의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연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교회는 여전히 연옥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혼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는 등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지요. 누군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연옥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체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이 현재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톨릭교회는 당신이 치명적인 죄(대죄)를 지은 채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옥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한 교리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다.

제가 증명해 드리지요. <신카톨릭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명적인 죄... 우리에게서 사랑을 박탈하고 성화의 은총을 빼앗아 간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이런 죄가 대속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추방되는 것’은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1941년에 만들어진 ‘당신의 혼을 구하세요’라는 카드를 보면 당시 카톨릭교회가 직접 지옥을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혼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여덟 가지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당신이 늘 행하도록 교육받은 목록입니다.

1. 성사를 받으십시오(미사에 참여하라는 뜻).
2.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3.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교회가 ‘치명적인 죄’ 즉 지옥에 갈 만한 죄로 규정된 것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죄가 치명적인 죄인가요?

수녀들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죄가 치명적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어야 한다.

2.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3. 우리가 이 사실에 온전히 동의해야 한다.

〈카톨릭교회의 공식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CC)에 보면 ‘중대한’ 일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꽤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목록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것이 유대교, 카톨릭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명령을 어기는 것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 한 분만 섬기라.

- **우상 숭배** : 거짓 신들에 대한 경배, 숭상 또는 믿음은 중대한 죄이다.
- **점, 마술, 마법** : 이와 같은 중대한 죄는 오컬트의 힘을 통솔하는 것과 악령과 영적인 존재들(특히 사탄)을 조종하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마법 주문을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CCC 2116).
- **신성모독** : 이 중대한 죄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나님께 성별된 것들을 비롯해 성사와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 **무신론** :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거짓으로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이다(CCC 2125).

둘째 명령을 어기는 것¹⁾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 **신성모독** : 이 중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해 증오, 비난, 반항의 말을 내뱉거나 그분을 비하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자들, 그리고 신성한 것들을 모독하는 것

1) 원래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이 가르치는 십계명의 둘째 명령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무수한 형상들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므로 둘째 명령을 제거하고, 대신 열계 계명을 둘로 나누어 천주교 방식의 십계명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도 중대한 죄이다(CCC 2148).

- **위증과 거짓 맹세** :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 또는 후에 맹세를 깨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중대한 죄이다(CCC2152).

셋째 명령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 **고의로 거룩한 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 모든 크리스천은 미사에 참여해야 하고 적어도 거룩한 의무 축일(holy days of obligation)에 열리는 성만찬에는 참여해야 한다. 고의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CCC 2181).

다섯째 명령을 어기는 것

살인하지 말라.

- **살인(의도적인 살인)** : 직접 또는 의도적 살인은 중대한 죄이다(CCC 2268).
- **낙태** : 낙태를 하거나 낙태 시술에 참여한 사람은 자동으로 카톨릭교회에서 파문 및 제명을 당하게 된다(CCC 2272, CIC Canon 1314).
- **안락사** : 어떠한 동기로든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죽어가는 자들을 직접 죽이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는 의지나 행동은 살인 행위이다(CCC2277).
- **자살** :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 친구, 가족, 이웃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다(CCC 2281).
- **추문(스캔들)** : 이것은 다른 이들을 악으로 이끄는 태도 또는 행동이다. 만약 누군가를 고의로 죄를 짓도록 인도한다면 그 인도자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이다(CCC 2290).
- **약물 남용** : 약물 남용은 건강과 삶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중대한 죄이다. 오직 합법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만 허용된다(CCC 2290).

- **폭식**: 음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세속적 욕구에 대한 무질서한 열정은 절제의 덕과는 반대되며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 폭식은 대죄이다(CCC 1866, 2290).
- **알코올 남용**: 이런 종류의 남용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히 유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CCC 2290).
- **테러**: 무분별한 협박, 상해 그리고 살인은 중대한 죄이다(CCC 2297).
- **극도의 분노**: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만약 분노가 고의적 살인이나 심각한 해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고 치명적인 죄이다(CCC 2302).
- **증오**: 고의로 이웃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CCC 2303).
- **갈취**: 강압적으로 혹은 위협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은 폭력 및 강도 행위이며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말씀에 의해 정죄받는다.

여섯째 명령을 어기는 것 간음하지 말라.

- **간음**: 기혼자가 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성관계를 하면 비록 그것이 순간적인 행위였다 할지라도 간음이다(CCC 2380).
- **이혼**: 이혼이라는 중대한 죄는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들(마5:32) 그리고 민사상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한다(특별 허가 시 제외). 따라서 세례받은 크리스천들 간의 이혼은 치명적인 죄이다(CCC 2384).
- **음행**: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육체적 결합은 중대한 죄이다(CCC 2353).
- **외설**: 제삼자에게 실제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을 왜곡하고 결합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신성하고 고결한 행위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 사랑에서 중대하게 벗어나는 행위이다(CCC 2354).
- **매춘**: 인간을 성적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낮추는 것은 사랑과 순결에 중대

하게 반하는 것이며 거룩한 영의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지만 결핍, 갈취 또는 사회적 압박은 이 죄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춘은 항상 죄이다(CCC 2355).

- **강간** : 강간은 피해자의 존엄 및 자유, 육체적·도덕적 순결을 범하는 것이다. 강간은 한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영원히 남길 수 있으므로 매우 잔인한 범죄이고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죄이다(CCC 2356).
- **동성애** : 동성애가 유전적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동성애를 책망하시며 교회는 절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전6:9-10; 창19:1-29; 롬1:24-27, CCC 2357). 만약 동성애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크리스천의 순수함과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에 다른 이들은 동정심과 세심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 **근친상간** : 근친상간은 결혼이 금지된 범위 내에 있는 친족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성적/육체적 관계이다(CCC 2388).
- **수음** : 수음은 성적인 쾌락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식 기관을 자극하는 행위이다(CCC 2352). 수음은 자연 이치의 모든 측면을 침범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이다.

일곱째 명령을 어기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 **절도** :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노동, 상속 또는 선물을 통해 사유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절도를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행위 및 피해자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죄이다(CCC 2408). 절도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입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가난한 거지가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은 부자가 궁핍한 사람의 예금을 빼앗는 것보다 덜 중대한 죄이다. 성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고전6:9-10).

- **부정행위** : 사기꾼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사취한다.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특이하게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덕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다(CCC 2413).
- **근로자의 임금 사취** : 이 죄악은 하늘의 보복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사취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빼앗는 것이다(CCC 1867).
- **불공정한 내기** : 불공정한 내기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빼앗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CCC 2413).
- **가난한 자들 이용** :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과 생존권에 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 역시 하늘의 보복을 부르는 것이다(CCC 1867).

여덟째 명령을 어기는 것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 **거짓 증언과 위증** :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 진실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위증은 선서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두 가지 행위 모두 무죄한 사람을 매도하거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피의자의 형량을 늘리게 할 경우 중대한 죄이다. 이것들은 정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CCC 2476).
- **과찬** : 악의적이고 비뚤어진 의도로 다른 사람을 부추겨 심각한 죄의 공범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중대한 죄이다(CCC 2480).
- **거짓말** : 진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진실을 손상시킬 때 그것은 중대한 죄이다. 이 죄의 심각성은 진실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거짓말할 때의 상황,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CCC 2484). 거짓말은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요8:44).

아홉째 명령을 어기는 것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 **욕정** : 무질서한 욕망으로 과도한 성적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것은 혼인 성사의 본래 목적, 즉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사랑을 하도록 명령하는 혼인 성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CCC 2351).

열째 명령을 어기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 **탐욕** : 세속적인 물질을 한없이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은 그 자체가 부와 사치를 향한 열정을 나타낸다. 영적인 의무를 훼손하며 일시적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탐욕이라는 중대한 죄를 짓는 셈이다. 탐욕은 치명적인 악덕 중 하나이다(CCC 2536).
- **시기** :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과도한 욕망, 이것 역시 심각한 죄이다. 시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약 시기로 인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 그것은 확실히 중대한 죄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 즉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크게 논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특히 내게 죄를 지으면- 그것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보실 목록은 조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믿음에 반하는 범법들

- **믿음에 대한 자발적 의심** :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계시된 진리를 묵살하는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한다(CCC 2088).
- **불신, 이단, 배교, 분열** : 불신은 드러난 진리를 등한시하거나 그 진리에 의지적으로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단은 신성함과 카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를 세례 이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배교는 기독교적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분열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교인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CCC 2089). 이러한 죄들은 범법자와 카톨릭교회의 일치단결을 불편하게 하거나 끊어버린다.

● 소망에 반하는 범법들

- **소망 중에 절망** : 소망 중에 절망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혹은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린다(CCC 2090). 크리스천의 소망은 신자의 믿음을 지속시키고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도외시되거나 거부되면 안 된다.
- **건방짐** : 교회는 죄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건방짐을 가르친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방짐과, 회개와 개종 없이도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분의 긍휼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건방짐이다(CCC 2092).

● 사랑에 반하는 범법들

- **무관심** : 이 중대한 죄는 신성한 사랑을 도외시하거나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관심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사랑의 선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의 능력을 부인한다(CCC 2094).
- **배은망덕** :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를 인정하지 않고 갚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거부한다(CCC 2094).

- **열의가 없는 마음** :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랑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CCC 2094).
- **계으름(영적 나태)** : 이 심각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거부하는 것이다. 계으름에 빠지는 죄인은 하나님의 선함에 들어갈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CCC 2094).
- **하나님을 증오함** : 이 중대한 죄는 교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인은 의지적으로 그분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증오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CCC 2094).

보시다시피 카톨릭교회에는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 이처럼 매우 많습니다.

제가 십 대 시절 어울리던 친구들은 모두 이러한 명령/규율들을 조금씩 어겼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게다가 저 목록에는 사소한 범법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무관심’, ‘배은망덕’, 그리고 ‘영적 나태’라는 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고의로 거룩한 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규율을 보셨죠? 이것은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마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미사에 가지 않거나 얼렁뚱땅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명령/규율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여전히 카톨릭교회는 일요일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룩한 날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그 죄와 함께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

르칩니다.

이 모든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은 채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러한 죄들을 한두 가지 지은 채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충분히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영원히 길을 잃은 채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무언가 빠뜨렸음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카톨릭 신자들의 영생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의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22쪽에 나와 있는 ‘당신의 혼을 구원하세요’ 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당신이 동방 정교회 신자라면 어떨까요?

동방 정교회는 2.25-3억 명이나 되는 신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크리스천 교회입니다(그리스와 러시아 정교회 포함).

이 종교로 개종한 유명인들 중에는 영화배우 톰 행크스와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방 정교회에서 자라났다면 이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 + 선한 행위’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공통된 역사 때문에 동방 정교회 교리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믿음 + 선한 행위’ 교리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개신교 신자라면 어떨까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성사를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악행’보다 ‘선행’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상의 결과를 소망해야 할까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단 몇몇 다른 ‘크리스천’ 종교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어떨까요?

잭슨 패밀리(마이클, 자넷, 라 토야,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테니스 선수 비너스와 세레나 윌리엄즈, 그리고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잭슨 패밀리는 현재 신앙을 잃은 상태입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혹시 당신이 여호와와 그의 증인으로 자랐다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여호와와 그의 조직을 위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잘 알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공통의 목표로 연합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브루클린과 뉴욕에 있는 여호와와 증인 이사회는 자기들의 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도 제게 똑같은 것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우리만이 '단 하나의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각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믿음에 의한 선한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선한 행위들은 개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분명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물, ② 죄의 회개, ③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④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공짜 선물'이라 부르지만 정작 선한 행위로 그 선물을 사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공짜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당신은 매주 몇 시간씩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해야 하고 <Awake>(깨어라) 팸플릿을 나눠 주거나 <Watchtower>(파수대) 책자를 구독하게 해야 하며 개종자들의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들과 그들이 설교하는 대상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조직을 식별하여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호와에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만약 당신이 신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당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반드시 ① 구원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에 가입한 뒤 ② 그들의 가르침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실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을 때 신실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일수가 사나운 하루를 보내서 당신의 ‘신실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나 스스로 하기’ 작전일 뿐입니다. 해야 할 목록과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 있지만 얼마만큼 해야 충분히 한 것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떨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영생을 위해 충분히 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이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당신이 몰몬교 신자라면 어떨까요?

몰몬교(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LDS)에는 오스몬즈, 49ers(미국 프로 풋볼 팀)의 전 쿼터백 스티브 영, 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 그리고 여배우 캐서린 헤이글(영화 ‘언더씨즈 2’ 등) 같은 유명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몰몬교도로 자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도니와 마리²⁾가 당신에게 다음 중 하나라도 가르쳤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율법이나 복음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믿음의 조례 중 3번 조항).

2) Donny & Marie. 몰몬교도로 유명한 가족 그룹 오스몬즈의 남편 도니 오스몬드와 마리 오스몬드를 뜻함. ‘도니와 마리’라는 명칭으로 1970년대의 버라이어티 쇼와 1990년대 말의 토크쇼가 있음.

당신이 이 말을 이해했을 것이라 믿고, 브루스 맥콘키가 지은 몰몬교 책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몰몬 신자들의 생각>에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중략)...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것은 율법이나 복음의 규례들에 복종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몰몬 신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하며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몰몬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 2 Nephi 25:23).

몰몬교의 세 번째 믿음의 신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며 율법과 복음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값진 진주 : 믿음의 신조).

몰몬교의 10대 회장을 지낸 조셉 필딩 스미스는 “율법과 복음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구원 교리, 1권 p.134).

몰몬교의 12사도 중 하나인 제임스 탈마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죄들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고 선한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제임스 탈마지, 믿음의 신조에 관한 연구).

몰몬교의 12대 회장을 지낸 스펜서 W. 김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행위들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다(용서의 기적, p. 207).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완벽한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로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잔혹한 세계의 밑바닥으로 미끄러지게 된다(스펜서 W. 김볼의 가르침, p. 153).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은 죄들이 전적으로 용서되는 것을 보증하고 높이 들리게 됨을 확증해 준다. (중략)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단지 죄를 버리려고 시도만 한다면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용서의 기적, pp. 164-165, 354-355).

몰몬교의 12사도 중 하나인 브루스 맥콘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으며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에서 본을 보이셨다(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 4권 p. 434).

지옥은 어떤가요?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말합니다.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즉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구원의 교리, 2권 p. 133).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즉 그분의 구속을 믿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고 많은 요구 사항들에 순종하며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카톨릭교회의 예수처럼 몰몬교의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을 구원하거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야 하고, 직접 노력해서 얻어야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오랜 시간 지옥에 머물지는 않겠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의문을 갖는 것은 대체 얼마나 해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들도 예수님을 들먹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3장

예수님이 없는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나요?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어떨까요? 앞 장에서 살펴본 로마 카톨릭교회, 개신교회, 동방 정교회 등의 행위 목록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성경의 십계명을 포함해 613개의 미쓰바(명령들)를 지켜야 합니다.

보수파든 정통파든 개혁파든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미쓰바, 즉 선한 행위(good deed)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먼스오ուն이라는 식품 회사를 공동 설립한 영화배우 폴 뉴먼과 같은 유명한 유대인 독지가들이 많이 있는데 뉴먼의 경우 한 자선 단체에 세금 이후의 수익과 로열티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2012년 6월자로 이러한 기부금은 3억 3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알 만한 배우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메릴린 먼로와 영국계 미국 여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유대교 방송에 나온 한 기사에 의하면, 먼로는 1956년 7월 1일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개종했으며 테일러는 27세에 유대교로 개종하여 평생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주도하는 유대교는 선한 행위와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 사후 세계에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구약 성경보다 사후 세계를 잘 검증해 볼 수 있는 더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이 말씀은 어떤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인 것과 모든 일,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전 3:17)

따라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위대한 선생님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눅10:25-28).

그 율법사는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바로 그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5절, 즉 쉼마라고 하는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 쉼마

쉼마는 유대주의를 확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쉼마를 암송하는 의무는 기도의 의무와는 별개이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아침과 밤에 쉼마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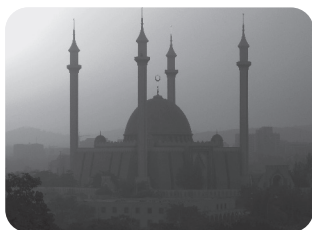
유대인 율법사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무조건 쉼마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자, 이제 다른 종교를 살펴볼까요?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어떨까요?

무슬림들의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16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 가수 겸 작곡가인 컷 스티븐스, 전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전 프로 농구 선수인 카림 압둘 자바와 샤킬 오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다양한 믿음을 가진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 분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몇몇 기본 교리들이 있습니다.¹⁾

● 무슬림 신앙의 7대 원칙

1. 신의 유일성(Tawheed)
2. 무함마드가 신의 대언자였다는 믿음(Riasallah)
3.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믿음(Mala'ikah)
4. 신의 책에 대한 신뢰와 믿음(Kutubullah)
5. 심판의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이해(Yawmuddin)
6. 정해진 운명에 대한 믿음(Al-Qahdr)
7. 사후 세계가 있다는 믿음(Akriah)

우리는 이미 이슬람의 5대 기둥이라고도 알려진 '지혜의 다섯 기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이슬람의 5대 기둥

이것을 행하면 당신은 알라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1. 믿음의 고백(Kalima: shahada) : 무슬림은 알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기꺼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도(Salat) : 무슬림은 엄격한 기도 일정에 따라 매일 정해진 횟수의 기도를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
3. 자선(Zakat) : 재물이 적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슬람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4. 금식(Sawm) : 무슬림들은 규칙적인 금식을 하는 것이 신에게 복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1) 이를 7신 5행이라고 부름. 최근에는 6신 5주라 부르며 위의 7대 원칙 중 6번까지를 다룸(편집자 주).

5. 성지 순례(Hajj) : 이것은 메카로 떠나는 성지 순례를 말하며 모든 무슬림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무슬림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저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며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무슬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무슬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슬림들은 실제로 친절하고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는 ‘알라신은 위대하다’를 뜻하는 무슬림들의 구호입니다.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이 표현이 여러 상황에서 즉 기도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고통당할 때나 승리할 때, 그리고 투쟁할 때에 사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라는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대언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꾸란(코란)은 알라에게 아들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꾸란의 신(알라)과 성경의 하나님(여호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슬림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회계 보고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생이 결정된다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그 자신의 목에 고착시켰으며 심판의 날 한 권의 기록으로 그에게 이르게 하니 모든 인간은 열린 채로 그 업적을 보리라(꾸란17:13).²⁾

각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진리를 따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³⁾

2) 이 책에 나오는 꾸란 구절은 모두 <한국어 꾸란>에서 인용하였음. 꾸란의 하나님은 알라를 뜻함.

3) 세계의 종교 : <진리의 영광 거짓의 영 2> 스티븐 코리,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1986)

웹사이트 ShariaProgram.ca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라가 허락하시면 모든 무슬림들이 무한한 축복(낙원)이 기다리는 영원한 종착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여행자에게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랍어로 샤리아(Shariah)는 물가로 인도하는, 잘 다져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이듯 일상에서 샤리아를 수행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과 혼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분명하게 낙원(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은 '믿음 + 선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흡사합니다. 좀 긴 목록이긴 하지만 다음의 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행위와 알라를 기억하는 것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사람과 돌을 태울 연료인 불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악한 행동들은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선을 낮추고 금지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귀를 외설적이거나 죄악에 찬 말로부터 지켜야 한다. 거짓말, 험담, 음약, 모략과 불경스러운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혀를 항상 바르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험담이나 다른 악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의 위를 할랄(이슬람법으로 허용된 식품)을 먹고 하람(허용되지 않은 식품)을 먹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는 씹어가는 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조심하고 술 취하는 것과 마약 복용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손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하거나 다른 무슬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너무 움켜쥐고 있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고의로 맹세나 증언을 깨뜨리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맹세나 증언이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그들의 정신과 혼을 부패시키는 것들로부터 떼어 놓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오직 알라만이 누가 정말로 믿는 자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믿는 자들 중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믿는 자들은 이생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 영원한 축복과 완전한 성공을 얻을 것이다. 알라는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라”고 말한다(꾸란32:17).

우리는 이제 달리기의 출발선에서 있으며 결승선까지 빠르게 달려야 한다. 그곳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한 사람을 위해 낙원의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알라의 메신저인 무함마드는 “낙원은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옥 불은 욕망과 열망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며 영원한 축복(Sahih al-Jami)에 이르는 길을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경주’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

다. 하지만 당신의 ‘최선’이 낙원에 들어가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이슬람교에서도 당신은 ① 믿음을 가져야 하고, ② 도덕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알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알라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든 혹은 숨기든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 이라(꾸란2:284).

우리에게 결코 종말이 아니 오리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두고 맹세하매 그것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하늘과 대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아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또한 큰 것도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이슬람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노라. 이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릴 것이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이 되리라 (꾸란34:3-5).

① 믿고, ②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너무 늦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꾸란21:47).

이슬람은 결국 당신을 다시 '정의의 저울'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여러 개신교 파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지요.

어떤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 입장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심판이 있다면 좋은 행위와 악한 행위의 무게가 비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무게가 나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려 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의 주요 3대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힌두교도라면 어떨까요?

전설적인 영국 록그룹 비틀스의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들은 1968년 봄, 인도에서 있었던 마하리쉬(위대한 구도자) 마헤쉬 요기의 초월명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그룹은 1970년 봄에 해체되었으므로 그들의 여정은 그들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리스트였던 조리 해리슨의 첫 번째 솔로 싱글 앨범은 197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My sweet Lord)'은 브라흐마, 라마 비슈누, 크리슈나와 같은 힌두교의 주요 신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는 그들을 '주'(Lord)로 불렀습니다. 해리슨은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처럼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개종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과 환생

구원은 탄생, 죽음, 재탄생과 같은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임

니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전 여러 차례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세에서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힌두교에는 미래의 천국이나 지옥이 없습니다. 현세에서 당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이 바로 당신의 지옥이며 이것은 당신의 과거 업보(카르마)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과거의 생에서 당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생에서 자신의 업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세에서는 더 낮은 존재나 더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환생합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당신이 내세에서 덕을 보거나 승급이 될 만큼 충분히 업보를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참 어려운 종교입니다. 비틀스는 차라리 성공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힌두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수행하고 의식들을 치름으로써 당신은 죽음과 환생의 회전목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 따르면 구원을 얻고 신과 하나가 되는 데는 4개의 길이 있습니다.

해탈(Moksha)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탄생-죽음-환생의 순환 주기에서 해방되는 때를 말합니다. 당신이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면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 신과 하나가 됩니다. 해탈에는 4개의 길이 있습니다.

1. **행동의 길** : 이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득 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식의 길** : 이것은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과 철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현신의 길** : 신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예배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힌두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음).

4. 왕도 : 명상과 요가의 기술을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방법은 전형적으로 방랑 수도사들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힌두교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노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진행해 보죠.

당신이 시크교도라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구루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구루'(선생이라는 뜻)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크'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인도 북서쪽에 있는 편잡주 출신이라면 아마도 시크교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크교는 약 삼천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조직화된 세계 5대 종교입니다.

이것은 나나크 데브 지(Nanak Dev Ji)라는 구루에 의해 15세기에 창시되었는데 그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신은 힌두교도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다. 내가 따르는 길이 신의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크교도들은 머리 두건과 옷차림 때문에 쉽게 눈에 띄니다. 이들은 제법 훌륭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크교도들은 어떤 인종이나 성별, 또는 종교와 관계없이 신의 눈으로 보면 모두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며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자가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루 나나크는 시크교도가 일과 예배, 자선에서 균형을 이루고 모든 창조물의 권리 특히 동료 인간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다. 이것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크교도는 환생을 믿습니다. 힌두교도나 불교도와 마찬가지로 시크교도들은 이생에서 행한 행위들이 내세에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해탈을 얻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날 것입니다.

해탈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고 신을 목상해야 한다. 시크교는 해탈을 얻고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 준다. 시크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단식하거나 절제하거나 계속 금욕을 하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가르친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신의 이름(진리)을 암송하며 어떤 순간에도 그를 기억하는 것뿐이다.⁴⁾

해탈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당신은 어떤 순간에도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느 한순간을 건너뛰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당신 자신이 죽음과 재탄생의 고리를 벗어날 만큼 충분히 행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말을 한번 살펴보지요.

‘구루 그란트 사히브 경전’의 저자인 바갓 트릴로찬은 사후 세계를 주제로 저술하면서 죽을 때 하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⁵⁾

이 말은 야구로 치면 9회 말 2아웃, 풀 카운트 상황에서 마지막 투구 하나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4) RealSikhism.com, 〈시크교의 신앙〉

5) 칼사, 〈시크교가 믿는 사후 세계는 무엇인가?〉

만일 당신이 이 종교를 따른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약속될까요? 반복되는 환생으로부터의 탈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에게 흡수될 때 당신 자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종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불교 신자라면 어떨까요?

부처(Buddha)는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의 원래 이름은 싯다르타(Siddhartha)였습니다.



왕자였던 어린 시절, 죽음을 목격한 그는 슬픔에 잠겨 왕궁을 떠났고, 그 후 평민의 삶을 살며 고통, 질병,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한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부처, 즉 ‘깨우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10억 이상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명한 개종자로는 배우 리처드 기어, 스티븐 시걸, 샤론 스톤, 케이트 보스워즈,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인 데이비드 보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불자로 자랐다면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가 가르친 것들입니다.

● 네 개의 숭고한 진리

1. 세상의 모든 것은 슬픔과 고통이다.
2. 갈망은 고통을 일으킨다.
3. 갈망을 끝내는 것은 고통을 끝낸다는 의미이다.
4. 갈망을 끝내는 길은 8개의 행로를 따르는 것이다.

● 여덟 개의 행로

1. 바르게 보기
2. 바르게 생각하기
3. 바르게 말하기
4. 바르게 행동하기
5. 바르게 생활하기
6. 바르게 정진하기
7. 바르게 마음먹기
8. 바르게 집중하기

부처는 네 개의 숭고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악한 뜻, 사악한 말, 욕정, 살생 등을 피하여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을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당신이 성공한다면(누가 당신을 심판할지 모르기에 당신이 성공했다고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당신이 얻는 것은… 무(nothing)입니다. 이것은 열반(Nirvana)이라고도 하지요.

힌두교도와 마찬가지로 불자들도 환생의 바퀴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은 열반을 얻고 우주와 하나 되기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브라마니 우주라고 믿습니다. 불교의 믿음 체계는 그들의 경전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로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타락하며
자기에 의해 악이 방치되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것
아무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법구경12:165).

죄로부터 멀어지는 데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문제는, 모든 종교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無)를 얻기 위해서조차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는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습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고통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입니다.

당신이 만일 ① 더 나은 현재, ② 사후의 삶을 포함한 더 나은 미래, ③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등을 공짜 선물로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잠시 뒤에 이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상고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기에 우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장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거나 가장 많이 미움을 받거나 가장 많이 존경을 받거나 가장 많이 조롱을 받는 책입니다.

‘좋은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배포하고 심지어 소유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화나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신의 삶을 소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찬양합니다.

토머스 제퍼슨(1743-1826)

당신은 그를 미국의 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이며 독립 선언서의 주 저자,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38년 이후로 5센트 주화에 제퍼슨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당신이 아이였을 때 그의 초상을 수백 번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퍼슨이 성경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신성한 성경책을 읽으면 당신은 더 좋은 시민,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¹⁾(1880-1968)

당신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았다면 미라클 워커에 나오는 헬렌 켈러를 알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거의 알지 못하던 소녀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에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어떻게 고립감을 극복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켈러는 세상에서 첫 번째로 농아이며 맹인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저술가, 정치가, 활동가, 인기 있는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고후4:18)라는 말씀은 나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패트릭 헨리(1736-1799)

우리는 그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기억하진 못해도 그의 유명한 말, 즉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대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헨리는 변호사이며 정치가였고, 1770년대 버지니아 주의 독립운동 기간에 연설가로 유명해진 헌법 제정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제까지 출판된 책들을 모두 모은 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 웹스터(1782-1852)

다니엘 웹스터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였으며 독립 전쟁 이전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웹스터는

1) 위키피디아 내용.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이긴 인간 승리의 인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교의 창시자인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천국 체험기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본서의 저자도 그렇게 알고 쓴 것으로 추정된다. 책 전체를 충실히 옮기는 의미로 그대로 실지만 본 출판사는 헬렌 켈러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지지하지 않음을 밝힌다(편집자 주).

1957년 상원 위원회가 뽑은 ‘미국 최고의 상원 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죽음을 예비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성경이 빠진 교육은 쓸모가 없습니다.

노아 웹스터(1758-1843)

학교 다닐 때 철자 시험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노아 웹스터는 그 점에서 신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전 편찬자, 교과서 개척자, 영어 철자 개혁자, 정계의 저술가, 편집자, 작가였습니다. 수많은 업적으로 인해 그는 ‘미국 학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대에 걸쳐 아이들이 <푸른 책 표지의 철자법>(The blue-backed speller)이라고 알려진 책으로 기초 철자법을 배우고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쓴 미국 영어 사전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웹스터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웹스터에 대해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지만 누구에게도 죄를 짓도록 가르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 말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교리의 책, 도덕의 책, 종교의 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책임과 자신의 존엄성, 동료들과의 평등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요인이고 모든 악을 가장 잘 교정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현세의 염려들을 단속하고 조절해 주는 최고의 책이며 사람들을 미래의 행복으로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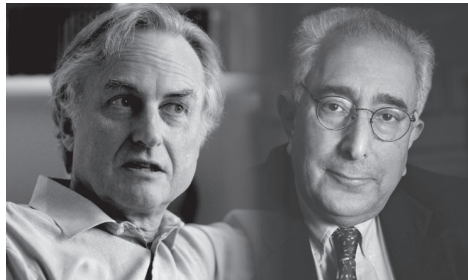
리처드 도킨스(1941~)

도킨스는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신의 환상>(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벤 스타인(Ben Stein)의 지극히 논쟁적인 '지적 설계 다큐멘터리', 즉 <추방 : 허용되지 않은 지성>(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에서 그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도킨스는 아마도 생명은 고도로 진화된 외계인들이 우리 행성에 전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도킨스와 스타인의 대화를 살펴보죠.

스타인 : 지적 설계가 유전학이나 진화론에서의 일부 이슈들에 대한 답으로 판명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킨스 : 글썄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에 우주 어디에선



리처드 도킨스(왼쪽)와 벤 스타인

가 한 문명이 아마도 다윈적인 방법²⁾으로 아주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로 진화하여 어떤 생명의 형태를 설계하여... 아마도 지구에 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 아주 복잡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화학·분자생물학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모종의 설계자가 남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타인(목소리 끊김) : 잠깐만요. 도킨스씨는 우리가 지적 설계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도킨스 : 음... 그 설계자는 우주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 온, 인간보다 높은 지능

2)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에 의한 점진적 진화 과정'을 뜻함(면접자 주).

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성의 그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연히 생겨났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스타인(목소리 끊김) : 그래서 도킨스 교수님은 지적 설계, 즉 신과 같은 어떤 설계자의 유형이 있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³⁾

도킨스는 무신론자(atheist)입니다. 여기서 a는 ‘없다’는 뜻이며 ‘theos’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를 지탱하고 진화하지 않은 ‘더 높은 지능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예를 들어 “그런 존재가 우연히 생겨났을 리는 없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보면). 어찌면 그는 거짓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신은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다음은 도킨스가 성경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상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부분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미상의 저자들과 편집자, 필사자들이 9세기에 걸쳐 연결도 안 되는 문서들을 무질서하게 대충 꿰맞추고 편집하고 개정하고 번역하고 왜곡시켜 ‘발전’시킨 일종의 문집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1875-1947)

아마 당신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크로울리는 평생 가장 영향력 있는 주술사(마법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크로울리는 또한 양성애자, 기분전환 약물 복용자,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듯이 그는 당대의 기존 도덕과 종교적 가치에 대항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철

3) 이후 벤 스타인은 내레이션으로 “잠깐, 도킨스가 지적 설계론을 인정한다고? ...도킨스는 지적 설계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창조자를 거부한 것이었다.”라고 덧붙임(편집자 주).

학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악명이 높았으며 실제로 대중 언론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비난하였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1971년 스코틀랜드 로크 네스에 있는 크로울리의 예전 집을 샀습니다. 비록 크로울리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1975년에 롤링 스톤즈에게 그 집에서 유명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회중들과 함께 바다까지 타버린 한 교회도 있었죠. 크로울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쁜 기운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요. 한 남자가 그곳에서 머리가 잘리기도 했었고 가끔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아마 크로울리의 집을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유명 이야기에 관한 좋은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크로울리가 성경에 대해 말한 것을 한번 보시죠.

누구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면 그는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 그것을 진지하게 읽어보려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이미 미친 사람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1920-1992)

아이작 아시모프는 보스턴 대학의 생화학 교수이며 많은 책을 저술하고 특히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아이 로봇> 같은 SF 소설이나 유명한 과학책을 쓴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몇 년 전에 아시모프는 “내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신을 믿었을 것이다.”라고 책에 적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신들과 아주 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가 주장하는 구원은 한 사람의 선행이 악행을 상쇄하는 것에 기초한 “직접 하세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또한, 지옥은 ‘어떤 자비로운 신에게 노골적으로 달

라붙는 가학 성애자가 침을 질질 흘리며 꾸는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시모프는 심지어 인간 정부도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을 삭감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후 세계의 형벌이 제한된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인간의 믿음이나 행동이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했다. 만일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가장 길고 가장 심한 형벌은 '지옥을 발명해서 신을 모독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⁴⁾

그는 많은 심오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히 말년에 아시모프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쾌한 호색한으로 꾸몄습니다. 1971년에 성 안내서인 '육감적인 여성'(저자 J)과 '육감적인 남성'(저자 M)이 인기를 얻자 아시모프는 'A 박사'라는 필명으로 '육감적인 추하고 늙은 남자'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본명으로는 1971년 출판). 호색한이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모프같이 명석한 사람에게 그런 이미지라니, 왠지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은 이제까지 상상해 온 것들 중에서 무신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마크 트웨인, 1835-1910)

당신은 〈툼 소녀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쓴 미국 작가이며 유머리스트인 마크 트웨인을 알 것입니다. 트웨인은 대체로 평소에 자신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단적인 견해들을 출판하길 꺼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트웨인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성경, 섭리, 또는

4) 위키피디아 '아이작 아시모프'

사후 세계에서의 형벌과 같은 메시지나 계시, 성경기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890년대 후기의 작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만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선과 악 모두에서 전능하시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힘들게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자기의 관심을 받기에 너무 하찮고 미미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무관심했다고 조롱하듯이 억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트웨인의 말년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사후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딸인 클라라는 “아버지는 가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지만 많은 경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이 사후 세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그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고상한 시들도 들어 있지만 선한 도덕과 많은 외설적인 것도 있으며 천 개 이상의 거짓말도 들어 있습니다.

좀 괴상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다음은 그가 진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았다고 확신을 심어 주는 것보다 그들을 속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들은 흥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흥미 있는 발언들이지만 단지 그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당신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당신이 죽은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후 세계에 관한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5장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나요?

사 후 세계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정부들이 이 책을 금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일부가 국가가 후원하는 어떤 종교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실제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을 당신에게 알려 준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사후 세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와 성경기록이 다 우리에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서 나온 사실들을 들어보시죠.

확실히 그분은 사후 세계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책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출처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의 공포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오직 그분만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무함마드도 죽었고 붓다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고전 15:17-18).

부활이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꾸란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하늘로 올리셨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알리]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총만하심이라(꾸란4:157-158).

이처럼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꾸란에서 알라가 자신에게로 예수님을 들어 올렸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 그는 성가시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보죠.

무슬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1.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가 죽을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소수 견해).

2.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예를 들면 유다) 예수의 모습을 주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다고 믿게 하였다(다수 견해).
3.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의 몸은 불멸의 몸이며 그는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도 아니다. 단지 그렇게 보인 것이다.
4. 하나님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배경에서 성장했다면 이 한 가지 사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다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결단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① 그는 대언자 이상이며, ② 그의 신성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③ 그는 정말로 메시아요 세상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는 둘 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① 예수님은 친히 그리스도(메시아)임을 주장하였고, ② 자신이 죽은 뒤 부활할 것을 예언했으며, ③ 마침내 실제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공포한 후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한번 보시죠.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마27:62-63)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그가 죽은 뒤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파수꾼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마28:11-15).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죽은 뒤 살아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파수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바로 지금 살아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성경이며 성경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과는 다릅니다.

● 정보의 근원

저는 (제 생명을 걸 정도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참된 책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35년 전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신화와 우화로 가득 찬 모음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7번 성경을 통독하고 말 그대로 수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저는 이것이 참이며 정확하고 실제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 고향 도서관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을 비롯하여 수백 권의 성경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전수되는 데는 주요 그리스어 사본들과 히브리어 사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영어 역본들이 어떻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지 뿐 아니라 지금까

지 출판된 주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에도 익숙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성경을 사용하실까? 성경 역본 논란의 설명과 해법>(Which Bible Would Jesus Use? The Bible Version Controversy Explained and Resolved)과 같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성경책과 그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진실하며 정확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 1,600년에 걸쳐 3개의 대륙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는 어떤 저자도 알지 못한 채 오랜 기간에 걸쳐 나오는 하나의 계획된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가 창조자로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슬림, 힌두교, 불교 등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 서적과도 차별화됩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가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씀하시길” 등이 800회 이상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 정말로 저를 감동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8번의 예언들(어떤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에 기록됨)이 나중에 성취될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로 추산될 정도로 기적적이고 수학적으로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19세기가 지나도록 신구약의 역사적, 과학적 오류를 찾아내려고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하나의 오류조차 증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빅뱅, 진화론, 네안데르탈인 등등을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믿었지만 그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저를 감동시킨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해 준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자신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성경기록에 남겼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곧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민23:19)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삼상 15:29)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딤후1:2)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말미암아(히6:18)

다음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이유를 알 때까지 당신은 결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누군가로부터, 더 중요하게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해 보았던 사람으로부터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그 책은 참됩니다.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잠23:23)

성경은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당신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심판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종교들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들이나 불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누가 심판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위의 말씀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지를 당신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는 법(당신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과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법
-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나면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시는 죽음을 예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계속 읽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저는 제 자신이 ‘죽음의 과정’(사고, 질병 등)을 기다리지 않으며, 알 수 없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말을 거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다음 저는 심판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으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 마음이 나를 버리나이다(시40:12).

당신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12만 개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위의 말씀은 그가 12만 개 이상의 죄들을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보다는 좀 낫습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애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의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시53:1).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회개 보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 또한, 저는 심판 날을 맞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 그날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게 될 날로 그분은 자신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후5:10).

그러나 저는 바른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1976년경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저는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정말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은 것이며 끝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 진리에 대한 탐구

저는 죽음과 임종(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 등)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십자회의 신비 사상(Rosicrucianism), 에칸카(Eckankar : 시크교 신비 사상), 심령술(Spiritism), 환생(Reincarnation), 전생 최면(Regressive Hypnosis) 등과 같은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한때 저는 신이란 성공을 위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정신(Universal Mind)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이에 대응할 만한 책은 <시크릿>(Secret)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책으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적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평소 유령이나 전생 최면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의 얼마 동안은 환생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탐구해 본 결과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진리였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과 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설교를 라디오로 들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성경 이야기들이나 카톨릭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들을 통해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아무도 이전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죽은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문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들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의 심장부’(마12:40)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옥은 당신 발밑으로 약 6,400km 아래 땅속에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옥에 대해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유로) 저는 점차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지구상에 살았던 실제의 많고, 많은 사람들(당신 이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지옥에 갇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눅12:5).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걸려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마5:29).

놀랍게도 성경기록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바르게 행한 것, 즉 나쁜 행위를 능가하는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믿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정말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는 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끝내 그것을 믿지 않았거나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이 책을 읽은 후에는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임).

우리가 배웠듯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직접 하세요” 방식으로 천국에 가게 해주는 ‘선한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잠4:12).

저도 이것을 믿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구원받는 사람보다 영원히 길을 잃고 버려지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마7:13-14).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룰 터이고 지금은 먼저 제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저는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이겨 냈습니다

제가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빼곤 모든 명령을 어겼습니다. 확실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첫째가는 큰 명령을 끊임없이 어겼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마22:37-28)

이제 누구라도 이 첫째가는 큰 명령과 다른 명령들을 지키면 그들은 완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예수님과 율법학자 간의 대화를 기억해 보세요.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눅10:25-28).

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 명령을 행하세요. 당신이 이것을 행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하여 당신은 살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 첫째가는 큰 명령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며 또 다른 명령들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말씀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의를 아주 높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정으로써 저는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10가지 명령 중 10가지 모두를 범했으며 다른 것도 범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어떻게 제가 첫째 명령을 지킬 수 없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째 명령은 어떤가요?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
지만(출20:4-5)

저는 결코 새긴 형상에 절한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욕
은 우상 숭배라고 하므로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탐욕스러웠습니다.

완고한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완고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유죄가 모든 사람의 목을 조인다.”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아닙니까? 저에게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권에서 작은 돌로 된 형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우
상들은 다른 사람, 집, 운동, 보석, 음악, 옷, 장신구, 자동차 등 하나님 이상으
로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제 마음을 쏟았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아무튼 둘째 명령은 지나갔습니다.

셋째 명령은 어떨까요? 저는 수천 번이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사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
다(사139:20).

저는 예전에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무척 거친 입을 가지고 있었죠. 솔직히 말
하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극도로 악한 입을 써서 사용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수천 번 이상 신성모독하고 저주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할 때마다 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

들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들은 그분의 말씀들이고 제 말이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처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기록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시7:11).

하나님께서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격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나1:2).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시21:8-9).

꽤 심각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 서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처럼 이런 죄를 지었다면 계속 읽어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은 이 명령을 범했던 모든 순간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서에는 이제까지 당신이 저지른 나머지 모든 죄들과 앞으로 범하게 될 모든 죄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명령은 저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긴 유감스럽지만 저는 여러 번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다섯째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섯째 명령,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출20:12).

한두 번이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성경 말씀이 참되다면,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롬6:23).

그렇다면 반항하며 10대를 통과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여섯째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라(출20:13).

절대로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분명히 부질없는 험담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흠을 냈습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마12:36).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왕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한 모든 부질없는 말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고 나

서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온갖 말들을 수년 동안 당신의 입에서 이미 쏟아 놓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나 더한 것은,

일곱째 명령,

너는 간음하지 말라(출20:14)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으며 또 영화배우나 남편이 아닌 남자들을 보고 그랬나요?

여덟째 명령,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

아홉째 명령,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출20:16).

열째 명령,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출20:17).

저는 이 모든 명령들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몇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녀들이 제게 가르쳐 준 한 가지는 그 명령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으며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기록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그분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들을 그분께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판사에게 말함으로 써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행하는 판사가 있다면 당신은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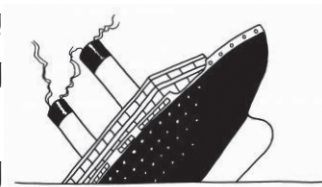
당신이 판사 앞에 나타날 때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기록에 의하면 당신이 하나의 명령만 어겨도 모든 것에서 유죄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당신을 죄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약 2:10).

어쩌면 이것은 성경기록 중에서 최악의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죄를 지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마치 모든 명령들을 범한 것처럼 유죄를 선고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죄라는 구멍이 당신의 배



를 가라앉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부류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라는 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들을 벌주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시9:17)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농담도 아닙니다. 제 문제는 제가 지옥을 향하던 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제가 어떻게 제 혼을 위한 대속물을 낼 수 있을까요?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시49:7-8)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혼(여러분의 혼도 또한)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대속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마20:28).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라.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후전: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저의 더러움과 죄 - 당신의 더러움과 죄도 - 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사53:5-6).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께 저의 모든 죄들을 돌리셨고 저 대신 그분을 벌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어야 할 어떤 죄들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대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해 성경기록은 그분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히4:15).

그분이 아니라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께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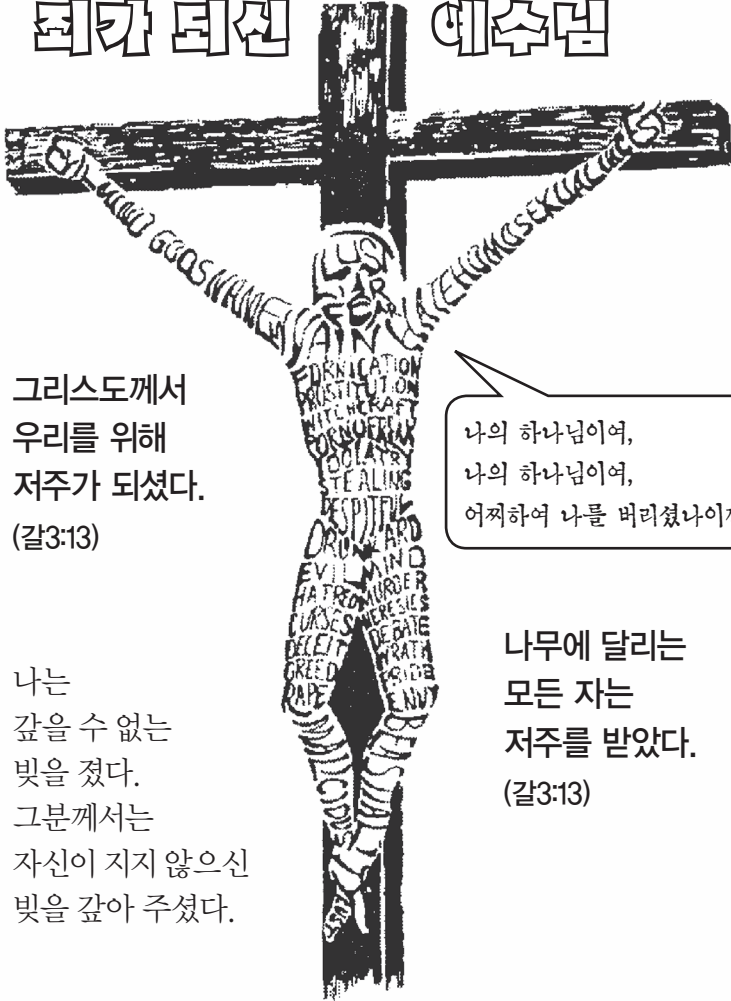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래픽 작가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제가 불쾌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충격적이고 불쾌하지요. 그러나 옆에 있는 그림은 성경기록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래픽 형태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갈3:13)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지지 않으신
빚을 갚아 주셨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다.
(갈3:13)

From the "God Made Jesus to Be Sin" tract by Michael Pearl. Published by No Greater Joy Ministries, www.nogreaterjoy.org. Used with permission.

죄를 알지 못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자신이 맡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들을 용서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한 죄인을 처형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고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저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로 온다면 그분의 처형은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 대신에 자신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저의 죄 짐으로 인해 제가 받아야 할 바로 그 형벌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실은 그분이 아니라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7).

좋은 소식은 지옥에 내려갈 어떤 죄들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저 대신에 하신 다음, 땅의 심장부에서 세 밤과 세 낮을 보내신 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다.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고전15:3-6)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언젠가 - 내가 바라기는 곧 -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혼란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9-11).

1978년 10월에 저는 제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길 잃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곤고함을 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다시 태어난 때였습니다.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저는 바로 그날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알았으며 지금은 확실히 압니다. 저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죄들을 저의 구원자께서 모두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저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 확실한 이유는 저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영존하는 생명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여기서 ‘생명이 있고’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농담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말하는 바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종교가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중요한 일, 바로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7장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일해서 얻거나 장점을 통해 받을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여러 종교의 요구 사항처럼 구원은 우리가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단언컨대 아무도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공짜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제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 따르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 + 선한 행위'를 통해 얻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공짜일 뿐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6:23)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물어보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큰 모욕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행위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다만 제가 말하려는 바는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달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얻어 놓으신 선물을 그냥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종교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들을 하며 여러 의식들을 치르며 다른 많은 것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도 그 종교들은 여전히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충분히 행했는지, 또는 천국의 자격을 얻었는지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우리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더러운 누더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리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행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롬10:2).

불행하게도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 음에서 대조적인 ‘의’를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10:3).

그렇다고 그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정말로 틀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기록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받으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 그분께서는 이미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만큼 쉬우나 ‘애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희생물을 영원토록 단 한 번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10:12) ...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히10:14) ...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다시는 필요가 없느니라(히10:17-18).

단 한 번 드리진 단 하나의 희생물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당신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 놓은 것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미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다 이루셨다면 왜 당신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은 당신을 구원하여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영원히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기에 충분합니다.

저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서로 바꾼 것은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죄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저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옥에 갈 죄들을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죄들을 맡으시고 저를 대신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만큼의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고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죄들의 빛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를 위한 대속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히7:25)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개신교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종교보다도 혹은 당신이 이제까지 들어보았던 어떤 ‘사상’이나 ‘주의’보다 더 강력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수녀들이나 예수회 파 사람들은 저에게 제 자신의 의를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악취가 남). 성경은 저에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4).

1978년 10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은 이날에 마침내 하나님과 바른(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그분에게서 그분의 의를 거저 받은 바로 그날에 저는 그분의 관대하시고 불공정한 제안을 통해 주님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은 이제까지 제가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을 저에게 주신 저의 구원자를 사랑합니다. 그분께서는 저

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한, 당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의 확신은 이제까지 했던 저의 행위나 앞으로 하게 될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미사에 참석하거나 주의 만찬을 받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를 두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자, 다시 읽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줄 권능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에게 말해 주었다면 그것은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당신이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결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성경에 따르면 당신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당신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분의 의만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6:28-29)

어렵지 않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들을 자신에게로 가져가시고 대신 자신의 의를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실 것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임종하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가요?



8장

당신도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기 전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않다고 수없이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저의 죄들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으며 당신의 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화평을 얻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일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세요.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또 놀란 만한 일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만들었던 바로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당신을 구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세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히 2:14-15).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 내길 원하시나요? 그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로 오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성경기록은 당신이 죽자마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일단 당신이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결코 다시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속박에 갇혀 있는 대신에 오히려 죽음이 그분께로 가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법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제까지 읽고 공부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5:11-1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제가 이 책의 서두에서 약속했던 간단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이 절은 당신이 주의 만찬(성만찬 혹은 미사)과 같은 의식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

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음으로 주고받습니다. 구원은 믿는 것이지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기록에 의하면 좋은 소식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히7:25)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원하는 것처럼 직접 행하려고 애를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 관계를 맺지 말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살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신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되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오늘 밤에 죽든지 3주 후, 혹은 30년 후에 죽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의나 종교적 행위들을 믿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회개하고 당신의 죄들로부터 기꺼이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그분

께 부르짖으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평생토록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저의 죄들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며 주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는 동안 어느 곳에서나 저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면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확신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확실성 :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히13:5).

안전 보장 :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9-30).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렇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잭 맥엘로이
다시 태어난 성경 신자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부록

1. 구원 방정식 100
2. 구원의 방법, 지식, 기쁨 117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43
4.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169
5. 구원 전도 예화 187

전도 자료 : 어디로 가십니까? 198



1

구원 방정식

문장으로 길게 쓰인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장을 잘 읽고 분석하여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한 뒤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잡해 보이는 인간의 구원 문제도 몇 개의 변수로 나누어 요약/정리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1. 구원의 필요성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한 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

물며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무(無)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 역시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합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심판받은 뒤 폐기되는 것을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1-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폐기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를 만든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구원의 방해물

사람과 물건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에게에는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부적격자로 판정하시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의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그 결과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사망이 임했고(롬6:23)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구원 계획

그러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갓 만들어진 펜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펜은 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설사 이 펜이 자기가 잘못 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그것이 자기를 고치거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이 서로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다 해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앓고 있는 죄라는 병 역시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무함마드, 소크라테스, 마더 테레사, 교황, 교주, 목사, 사제 등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만이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고등 설계자 즉,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함으로써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4:12).

4. 구원 방법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대신하는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 심판을 다 감당한 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나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롬5: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습니다(엡2:8-9).

5.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6. 구원 초청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부지런히 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당신에게 닥칠지 모릅니다(히 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당신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벧전1:23).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7. 구원 방정식의 요소들 설명

A.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온 세상 만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즉, 창조자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가장 고등한 생명체 역시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메바 같은 단순한 생명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꾸며낸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크기를 제대로 측량하기조차 어려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지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첫머리에서 그 창조자를 ‘하나님’(God)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보다 더 크고 권능이 월등하게 넘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보다 훨씬 더 고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출3:14).

이 말씀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시요,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공간에 “나는 I AM이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 전에도 I AM이시요, 지금 이 순간도 I AM이시요, 영원한 미래 속

에서도 I AM이신 분 즉,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위대함과 전능함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한대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공의와 사랑과 진노를 지닌,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호와 은혜가 영원토록 무한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 역시 영원토록 무한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이렇듯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먼지의 100만 분의 일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물과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요, 창조자이시고 사람을 포함한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B. 사람

(1) 사람의 창조와 타락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특별한 창조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겔28:14).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불법이 생겨나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에

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마귀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마침내 이브에게 접근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또 이브는 그것을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深淵)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에게 에덴동산에서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금지 항목을 두셨는데 그것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자유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이 제약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죄가 그에게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창1:26-27).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중 일부만을 유지한 채 본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형상에 따라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죄로 인해 사람은 다 결국 늙고 병들어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고(창5:5) 또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사람의 상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1-3)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즉, 죄 가운데 태어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제 막 새로 구매했지만 아직 개통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전화기로서의 본연의 역할 즉 의사소통은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개통되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거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간 본연의 존재 목적 즉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 가입해야 통화할 수 있듯이 사람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입해야 그분과의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통화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화기라 할 수 없습니다. 구형 전화기라도 깨끗한 음질로 통화가 가능하다면 전화기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킵니다. 전화기의 생명이 통신사와의 연결에 달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과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학식이 높다 해도 통화가 안 되는 전화기처럼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성경대로 그는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입니다(요일3:10; 엡2:3). 또한,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사64:6).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과 같이 달리고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같이 부활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란 이처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4-7).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통해 이토록 놀라운 '인간 구원 드라마'를 천사들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십니다(엡3:10). 이로써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 속에서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엡2:8-10).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 안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에서 사람의 행위가 이바지하는 것은 0%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100%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행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갈고닦아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3) 사람의 구속(救贖)

성경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설계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이 창조자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곧 죄이며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동성연애, 시기, 질투 등의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즉 자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는 성경기록대로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마치 설계대로 나오지 않은 불량제품이 폐기되듯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절망적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 두 성품 중 어느 하나를 양보하거나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

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며 사람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충족시킬 완전한 희생 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그분에게 쏟아 부으셨고 이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고후5:21).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희생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히9:26).

C. 믿음 : 구원의 핵심 요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 단 하나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사람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악행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귀여운 강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길에서 놀다가 갈비뼈다귀를 발견하였습니다. 강아지는 그것이 먹고 싶었지만 자기를 아끼고 보호해 주는 주인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것을 먹지 않고 물어다가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뼈다귀를 보자마자 즉시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는 오히려 강아지를 나무라며 더러워진 강아지의 몸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 내가 가져온 이 뼈다귀가 오히려 집안을 더럽게 하지 않니?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고 기뻐하며 내 품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다야.”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쓸모없는 갈비뼈다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선행, 위대한 업적, 찬란한 지식, 고매한 철학, 각종 종교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뼈다귀 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더러운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마치 강아지가 제 주인을 알아보고 그의 보호를 확실히 믿으며 그의 품에서 기뻐 뛰어놀 듯이, 사람이 자신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으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입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단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D. 은혜 :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선한 행위나 재

물, 노력, 학식, 지혜 등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일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인 공기나 햇빛 등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어집니다. 이것들은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감히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70-80년의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자연환경도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삶을 과연 사람이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공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엡2:8-9).

E. 예수 그리스도 :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대한 개미집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발견했는데 공교롭게도 저 멀리 홍수가 나서 잠시 후에는 사나운 물길이 개미집을 온통 집어삼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들 가운데로 들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즉, 지금 빨리 개미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잠시 후 홍수로 몰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30-31).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누구에게나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렇듯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므로 기독교는 타종교와 달리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그러므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와 WCC 종교 통합 운동 등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은 종교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게서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0-12).

F. 선한 행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구원에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일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며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에는 어떤 차등도 두지 않지만, 본래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구원 이후에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보고 결승점까지 전력을 다해 달리듯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선한 믿음의 행위를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히11:6).

G. 불신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보상에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적용됩니다. 생전에 심히 악한 죄를 저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들, 복음을 증언하는 크리스천들의 경고를 수없이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들은 유향으로 타는 불 호수에서 더욱 뜨거운 형벌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영원토록 씁 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20:11-12).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다 불러 나와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뒤에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H. 구원 초청

아침 출근 시간에 밖으로 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그야말로 분주하게 단 몇 초를 아끼며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는 시간은 양초가 불꽃을 내며 연소하여 없어지듯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시간 속에 사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장성해서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맘을 흘리며 일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도 힘든 세상이기만 그런 노년은 고작해야 20년에서 길면 30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끝없는 시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각종 보험이 넘쳐나는 때에도 죽음 후의 삶을 보호해 줄 보험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라고는 고작해야 죽음 후에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정도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 언젠가는 꼭 죽어야 하는 사람이 맞이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죽은 뒤의 삶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시간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언제 당신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면 그 문제를 더는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당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3:13).

기회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를 놓쳤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한대의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무궁토록 바로 당신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맹렬한 속도로 날카롭게 돌아가는 원형의 칼날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칼날이 닿기 직전까지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칼날과 당신이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그 날카로운 칼날에 당신은 결국 파멸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당신 앞에 놓인 날카로운 칼날을 저 멀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거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무지와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당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끝끝내 진리를 거부하고 마지막 기회마저 소진하며 이 세상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벴후3:9-10).



2

구원의 방법, 지식, 기쁨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란 종착역에 이르게 될 순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이 나그네길이라면 당신은 다음의 세 대열 중 한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대열 :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제2대열 :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

제3대열 :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글은 커팅(George Cutting)이 지은 〈Safety, Certainty, and Enjoyment〉를 번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열에 속한 채 여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자로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인간 모두를 향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늘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에 놓인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무시한 채 마침내 큰 구렁 저편에 있는 지옥에서 발버둥 치게 될 몸서리치는 불행을 도외시한 채 인류는 이제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달고 있으며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셔서 당신이 자칫하면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간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요,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당신 자신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고 당신 자신을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루 미루는 일이 열흘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영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차차라는 길은 영원이라는 마을로 인도한다.”는 스페인 격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차차’라는 길로 걸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후6:2).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저는 결코 제 영혼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은 둘째 대열에 서서 여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관심과 불확신은 모두 불신이라는 한 가지 요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관심이 생겼고 마침내는 죄와 타락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책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갈망하는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당신 영혼의 깊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책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인자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외딴곳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확실한 곳에서 듣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깊고 날씨도 추우며 빛도 없고 길이 험하여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르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요, 저 길로 가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초행이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으실까요? 어두운 밤, 초행길에 방향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점점 당신에게 불안과 초조를 더해 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하고 초조한 나머지 침식을 잊게 된다거나 심한 갈등이나 초조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게 된다면 이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게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원의 방법(사도행전 16장 17절)
2. 구원의 지식(누가복음 1장 77절)
3. 구원의 기쁨(시편 51편 12절)

얼핏 보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사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그것들은 각각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의 도리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 구원의 방법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3장 11-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봅시다.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곁에서 있는 어린 나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 말합니다.

“사정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사장님, 제발 이번만 공흠을 베풀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약하고 어린것이 제 나귀의 첫 새끼입니다. 저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양으로 대속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을 대신해서 내어 줄 어린양이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생명을 살려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됩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할 어린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린양이 죽든지 아니면 반드시 나귀 새끼의 목을 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젠 다 틀렸군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군요.”

그때 옆에서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내가 해결해 보겠네. 언덕 너머 우리 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말을 잘 들어서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내가 부지런히 가서 그것을 끌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게 나.”

마침내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그가 데리고 온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양’이 죽어서 그 피가 제단 아래 뿌려지고 그 몸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나귀 새끼를 데리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목을 꺾지 않아도 되었

으니 참 기쁘겠소. 어린양이 대신 죽었으니 나귀는 털끝만큼도 다칠 필요가 없소. 당신의 친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군요.”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의 머리를 꺾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요구하시는 공정한 판단입니다. 이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가 예비해 주었던 어린양 같은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자신이 직접 예비하신 어린양 즉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넘겨지셨으며, 죄 있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롬4:25).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경건치 않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오히려 그렇게 하심을 통해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롬3:26).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예! 저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완전하신 희생물이 되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당신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도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까! 또한, 이 구원의 섭리아말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공훈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이 모든 구속 사업을 완수하고 모든 찬양을 받도

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시34:3).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저하며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받게 하지 않았습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을 걷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의문을 가친 채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실이나 능력 또는 율법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체계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어져 된 일일까요?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제 마음은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배와도 같은데 이어져야 좋을까요?”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닻을 배 안에 매어 놓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

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 하시겠지만 배를 안정시키려면 배의 밖에 탄탄한 곳을 골라 닻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덕을 부리는 느낌, 감정, 기분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 하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2. 구원의 지식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혹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조금 바꾸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느낌들을 준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위의 구절과 아래 구절을 대조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보십시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다윗의 고백도 들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시119:113).

첫 번째 유월절 밤 곧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던 밤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만아들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출애굽기 12장 참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두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첫째 집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집의 만아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밤에 파멸시키는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고 했으므로 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온 가족이 안절부절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파멸시키는 천사가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가고 새벽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길고 무서운 밤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양을 잡고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게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첫째 집을 떠나 그 옆집으로 가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그 집의 분위기는 첫째 집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얼

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처럼 엄숙한 밤에 이 같은 평안함이 있다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작업반장의 잔인한 채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밤이 이집트를 심판하는 밤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맏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거든요.”

“바로 옆집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피를 뿌린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출12:13). 우리 하나님은 밖에서 그 피로 인해 만족하실 것이고 우리는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안전할 것입니다.”

문에 뿌려진 피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문에 뿌려진 이 피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이 두 집 중에서 어느 집 맏아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평안히 거하고 있는 둘째 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집 모두 안전합니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밖에 뿌려진 피를 어떻게 대

하나에 달려 있지 안에 있는 그들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의 복을 누리려면 당신의 속에서 나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이제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한 농부가 자기의 가축을 위해 좋은 초장을 얻으려고 물색하던 차에 자기 집 근처에 좋은 초장을 세놓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인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주인에게서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 초장을 임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 주인이 당신에게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왔고 지난번에는 그분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당신을 보고는 손을 흔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농부의 마음은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농부는 다른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에 당신이 그 목초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은 주인과 친한 사람이 그 목초지 임대 신청을 했다는데 요즘 그 사람은 문턱이 닳도록 주인집을 드나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농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한 때 희망으로 부풀었던 가슴은 이제 절망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는 희망으로 인해 기뻐서

날아갈 듯했는데 오늘은 온통 걱정과 의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배원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서 온 편지를 뜯으면서 그는 주인의 글씨가 분명함을 보고는 얼른 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농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읽고 또 읽고 환호성을 올리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안심해도 돼. 이 편지를 보라고! 주인이 내가 필요한 대로 그곳을 마음대로 쓰라고 했고 임대 조건도 아주 유리하게 해 주었어. 이제 됐어. 끝이야. 다른 사람이 무어라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련하게도 이 농부와 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허탄한 생각으로 인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초조함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불신자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말씀이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100% 확실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

“나는 어떤 다른 논쟁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청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다 다음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도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올바른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십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을 믿느냐에 즉 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그분을 꼭 부여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신히 그분의 옷단을 살짝 붙잡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할까요? 한 사람만이 더 안전하거나 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처럼 꼭 붙잡았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만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행위를 하거나 엄격한 종교 생활 혹은 종교 의식을 잘 지키거나 경건해졌다고 느끼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당신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엄청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확신은 당신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연약할지라도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으로 구원합니다. 이 외의 인간의 어떤 다른 선한 일도 우리를 구하지 못하며 그것은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마3:17).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울상이 돼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다가와서 저보고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미드랜드에서 도살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에 시장이 열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집에 올 때에 당신이 아버지에게 “아빠, 몇 마리나 사오셨어요?”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또 그때에 아버지

가 “열 마리를 사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웃 사람이 와서 “당신 아버지가 양을 몇 마리나 사오셨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거짓말이 될까 봐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옆에 있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것은 네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독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위의 젊은 여인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믿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왔지만 모두가 허사였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확신은 고사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내 믿음을 보면 볼수록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여! 지금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믿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제 말에 잠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역장이 철도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 이 소식을 전해 준 그 사람은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겠지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은 그 사람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십니

까?”라고 물으면 당신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습니까?”라고 반문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기꾼의 말을 믿어 줍니까?”

이로 보건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우리 속의 우리 믿음이나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전해 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말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와서 역장이 화물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정말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말을 조금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 내부의 믿음이나 감정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알려 준 사람에 의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당신은 “자네 말이라면 여부가 있겠나? 딱하게도 역장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했군!”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친구의 말을 고스란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건 현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당신의 맘속에 그럴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게 복음을 전해 주는 그분 즉 그리스

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복음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속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일5:9-10).

아브라함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4:3).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는 한 불쌍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종에게 나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도무지 믿기지 않으니 어쩌면 좋죠?” 그때 상담을 하던 설교자는 조용하고도 슬기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지요?”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이 악순환의 사슬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자기 밖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꾸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무언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속에서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태

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을 어둡게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구속 사업을 통해 이미 당신과 저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구원의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일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 구원의 기쁨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이나 다름없이 낙심하고 답답해 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위안이나 기쁨을 송두리째 잃게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봅시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에 의해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도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옛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악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육체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언행 심사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서는 대로 길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 기쁨, 화평 등과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은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열매들이 부족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업과 당신의 구원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당신의 세상에서 걷는 것과 기쁨 역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효가 된다면 당신의 구원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당신이 걷는 일이 잘못되면 당신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첫째 논리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 논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기록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심령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부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면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확신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으므로 절대로 안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당신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일을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실제적으로 중단됩니다. 바로 이때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판단하고 당신의 죄들을 고백하면 교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자녀의 언행과 표정에서 이 사실을 역력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리광을 부리며 태연자약하던 아이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서려 있고 행동이 어색하며 자꾸만 부모의 낯을 피하려 들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자백하여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사리 자백하지 않은 채 울며 버틴다고 부자간의 교제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겸손하게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순간부터 자백하고 용서를 받기까지 이 아이에게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간의 관계마저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 관계는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자간의 귀한 교제가 어린이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고 달래 주며 위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에야 비로소 이 아이는 다시금 부모와 스스럼없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사건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뒤에 다윗은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시51:12)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진리를 잘 나타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시무룩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아마 당신은 그 아이를 제일 먼저 데리고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를 통한 사랑과 교제가 주는 기쁨이 이처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영적 교제가 중단되므로 그가 자백하기까지 즉 자신을 반성하고 통회할 때까지는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분명한 통회와 자백이 있었다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지옥의 세력이 힘을 합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8:38-39).

그렇지만 불순종의 생활은 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 놓으며 당신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만일 당신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잠깐이라도 심령이 답답하며 기쁨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을 반성해 보십시오.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간

도둑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어서 왜 내가 기쁨을 잃게 되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노략질하도록 부주의하고 나태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치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보다 다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죄 문제에 관한 한 절대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죄는 날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이미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의 죄 문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10:12)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주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죄의 대가로 영원토록 불 호수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구원 얻은 사람은 다시금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끊어지거나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달밤에 한 친구가 연못에 비친 달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는 눈부실 듯 빛나는 은빛 보름달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느닷없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쟁반 같은 보름달은 순식간에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달이 산산조각 나 버렸군!” 하고 중얼거리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응수했습니다. “달이 깨어지다니! 무슨 소릴 하고 있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나. 달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변했다면 연못 속에 비쳤던 달의 모습이 변한 걸세. 안 그런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 연못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당신의 심령에 비취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돌맹이가 날아든 연못처럼 어지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죄들을 자백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평화롭고 즐거운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과 불안이 교차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도 연못에 비친 달처럼 수시로 변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의 구원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심령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변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죄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정죄하시고 대적하시는 죄악에 대하여 당신도 마찬가지로 정죄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당신은 위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전3:14).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1:24-25).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터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결코 변치 아니하시기에 당신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나의 사랑은 자주 식으며 나의 기쁨은 자주 흔들려도
주님의 공로는 변함이 없고 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나와 세상은 늘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내 평생 의지할 구원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네.
나의 사랑은 늘 식어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식처
온 천하 만물이 다 지나가도 주님의 진리가 날 붙드네.

이제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열에 서서 인생의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3:4).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요3:33).

이 글을 읽으시는 가운데 당신도 이제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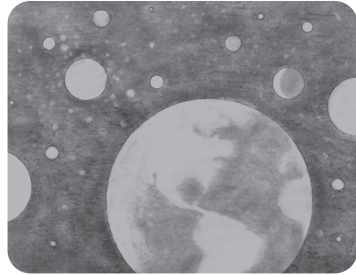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Soul winning)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숙지한 뒤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부디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지혜이심을 기억하고 사명에 임하기 바

랍니다. 그분께서 영혼을 사랑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음 선포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하늘과 땅의 창조자 되시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창1:1; 행4:24; 골1:16; 계10:6).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시계나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계나 핸드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은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으며 고도의 설계자가 정교한 청사진을 만들어 창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 동물과 식물 등 온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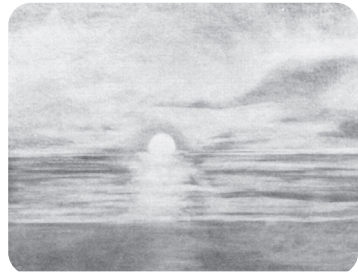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니라(창2:7).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곧 당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바로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지탱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히1:3). 하나님은 당신과 온 세상과 상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당신과 온 세상은 매 순간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으므로 당신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당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창조의 진리는 다른 많은 진리에 다 다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존재입니다(신33:27; 시90:2; 93:2). 다시 말해 그분께는 시작이 없으며 또한, 생명이 다하는 때도 없습니다. 육은 그분의 연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욥36:26). 이것은 곧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닌 적이 결코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사44:6, 8).

그분은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히 계실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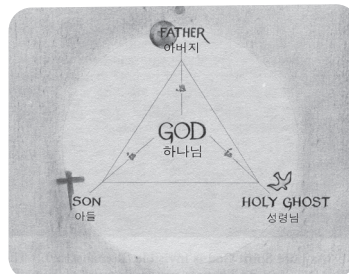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4:24).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의 본질은 곧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물질적 요소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곧 그분께서 본질적으로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민23:19; 사31:3; 눅24:39; 요4:24).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롬1:20; 딤후1:17) 따라서 그분의 형체를 그려 볼 수도 없고(신4:15-23; 사40:25) 물리적 수단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요4:24; 행17:25).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한 곳에만 묶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왕상8:27; 행7:48-49; 17:24).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므로 그분의 앞을 떠나 숨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시139:7-12; 렘23:23-24). 당신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시139:1-6; 잠15:3; 사46:10; 요일3:20).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 중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유한한 지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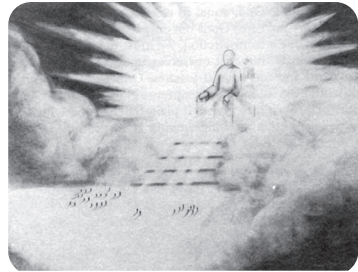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말씀인 성경은 한 하나님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신6:4; 사43:10; 44:6, 8; 45:5-6, 21-22, 46:9; 막12:28-32; 고전8:4; 딤후2:5; 약2:19). 그런데 한 하나님은 세 분 즉 아버지, 아들(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마28:19; 요1:1-2, 14; 5:18; 20:28; 행5:3-4; 요일5:7; 요이9).

이 세 분은 본질, 권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

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과거도 시간이며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코 세 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단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며 이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언뜻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존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를 가리켜 ‘크리스천 신앙의 최종적이고도 지고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어서 자신의 창조 세계, 자연 만물,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다 다스리시며 심지어 사탄 역시 그분의 권능과 제재 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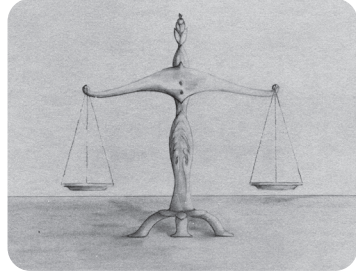


에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났음을 보여 줍니다(욥1:7-12; 시 107:25-29; 잠21:1, 31; 단2:21-22; 나1:3-6; 마4:10-11; 엡1:11). 성경의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단4:35; 참조 사115:3; 렘32:17; 마19:26; 눅1:37).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어 있음을 뜻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과 다르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순수하고 선하며 의로우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요일1:5).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므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므로 더럽거나 악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합1:13).

정결하게 씻을 것을 규정한 모세의 율법 체계; 성막의 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희생물을 바칠 것;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출3:5; 수5:15); 고라, 다단, 아비람의 죽음(민16:1-33);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레10:1-3)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거룩함을 새겨 주기 위한 교훈들이다(R. A. 토레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위에서 있는 스랍들은 계속해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사6:3; 계4:8).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창18:25)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그분께

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불법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불법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사45:21; 요5:30; 행17:31; 계15:3).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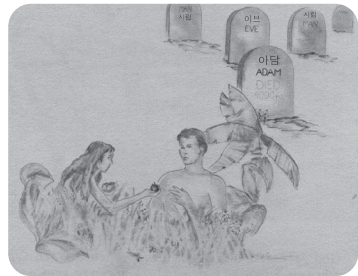
이제 당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며 사랑을 보이십니다.



금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엡2:4-5; 참조 마5:45; 요3:16).

사람과 첫 번째 죄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



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

그런데 이브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첫째 죄요, 반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는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롬5:12, 18; 엡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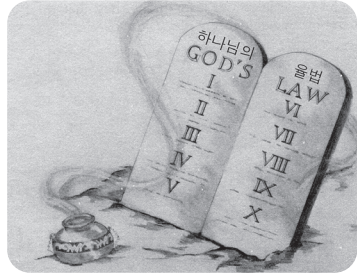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 소위 십계명이라 불리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죄는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런 율법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롬3:20; 갈3:10-12; 요일 3:4; 약2:10-11).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셨으며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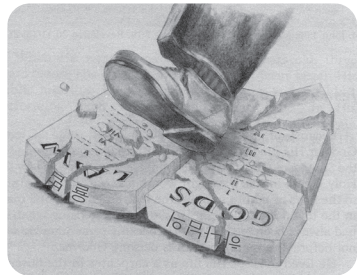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 잠30 마5:21-32; 막12:30-31).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열 가지를 다 어기지 않는 않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어겼음을 곧 인정하실 것입니다.

죄 문제의 심각성은 당신이 고의로 이런 율법들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시51:5; 사64:6; 롬3:9-19, 23; 엡2:2-3). 당신의 죄들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같은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사64:7; 램10:23; 13:23; 요 1:12-13; 롬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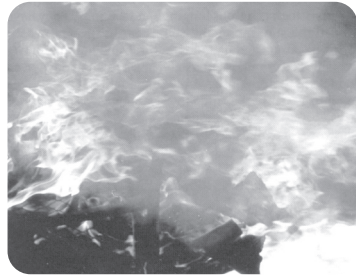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인들에게 분노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죄를 범하는 혼은 반드시 죽습니다(시7:11; 겔18:4, 20; 롬6:23).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롬1:18)

따라서 당신이 죽기 전에 그분의 진노를 되돌리지 않으면 당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맞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마25:31-46; 요3:36; 롬1:18; 계20:11-15; 21:8).

지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만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옥을 마련해서 죽은 이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중 어떤 의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낸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말하며 그곳

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지옥의 정죄와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요, 용광로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통을 받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밤낮으로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며 지옥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격리되어 안식과 평안이 없이 거할 것입니다.

● 지옥은 최종 장소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들은 다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말해 출구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경우 천국과 지옥이 전혀 다른 곳에 있으므로 아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공포나 외로움 혹은 고통은 사람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옥은 정당한 곳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원하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영원토록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서 이제 당신은 신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뱀들이,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하겠느냐?(마23:33)

종교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종교 및 윤리 백과사전>을 보면 사람들

이 자기들의 종교적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 달, 별, 지구, 물, 불을 숭배해 왔으며 또 돌, 나무, 금, 은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경배해 왔고 또 물고기, 새, 짐승 등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신이나 영을 상상해 내어 그것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물, 예식, 성사, 봉사 등을 통해 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무리 진지하다 해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 첫째로 종교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거기에는 흠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으실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의 이 같은 노력은 허사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사64:6).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며 사람의 종교는 결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둘째로 종교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선행은 결코 악행을 없애지 못합니다. 당신의 미덕은 결코 당신의 악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 해도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유아 세례, 견진 성사, 침례, 세례, 주의 만찬, 교회 참석, 기도, 헌금, 성경 읽기 등과 같은 종교 행위나 경험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 셋째로 종교는 결코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죄로 인한 현상이지 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속마음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의 속마음은 부패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17:9) 교회에 가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가 당신을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욥14:4)

위에서 언급한 종교 행위 중 어떤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당신의 죄와 저주만 늘어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처한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기적적으로 수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처녀 탄생).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마1:18-25; 요1:1-14; 딤펢전3:1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이란 이름 없는 촌에서 사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고 사람들처럼 사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 속에 죄가 없으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짓지도 아니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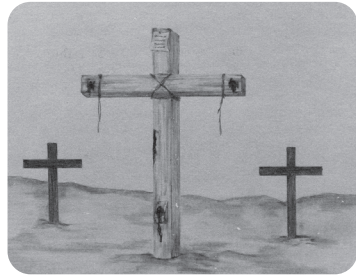
의 모든 법을 성취하였습니다(히4:15; 7:26; 뱀전2:22).

예수님께서서는 서른 살이 되셨을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종교를 버리고 자신을 향해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에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마1:21; 요8:23; 행2:22)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곧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신은 죄를 범했고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 두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첫째 장소는 사람들이 자기 죄들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지옥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옥이 통째로 던져지게 될 불 호수입니다. 둘째 장소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 하셨습니다(엡2:16; 골2:13-14; 뱀전2:24).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은 매우 복된 것이요, 값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물이 되

어 쫓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죄 즉 대속(代贖)을 이루었지만 그런 희생물은 완전하지 못하므로 매해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려야했습니다. 그런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일시에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십시오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러한 화해 헌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사53:5, 10-12; 롬3:25; 고전15:3; 갈1:4; 딤후2:14; 히1:3; 9:26-28; 10:12; 요일4:10).

이러한 완전 속죄로 인하여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이 정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벤전3:18; 참조 롬5:10; 고후5:18; 히2:17).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속죄물로 지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 죄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 주셨으나 사람이 이런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해도 사랑으로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4-5).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서는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께서는 자신이 살아났음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해서 나타나시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영(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눅24:39; 참조 마28:6; 행1:3; 롬4:25; 벰전1:21).

부활하신 뒤 사십 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올리브산을 떠나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고 계십니다(행1:11; 딤후2:5; 3:16; 요14:6).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일들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분께서 성취하고 계신 직분 중 하나는 대언자의 직분입니다.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대언자가 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 계셔서 직

무를 수행하고 계시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대언자가 없습니다(신18:15; 마 21:33-46; 요7:40; 행3:22-26; 히1:1-2).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신 또 다른 직무는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셨으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유대교나 천주교에 존재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요17:20; 히3:1; 7:21-25; 8:1-6; 벰전1:5).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이제 어찌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내게 적용됩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들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 주실까요?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의식이나 예식 같은 것을 행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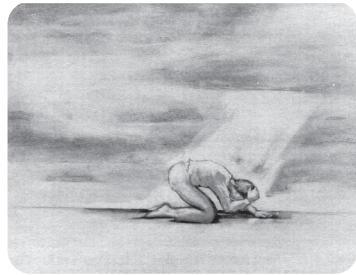
이런 질문들은 다 좋은 질문들이며 성경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문은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돈 주고 구원을 사거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무슨 황홀경에 이르는 감정 같은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무슨 예식이나 의식을 행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욘2:9; 롬6:23; 엡2:8-9; 빌2:13; 딤후3:5).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죄인이며 죄의 형벌이 있음을 인정하고 죄들을 회개하며 예수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란 죄에 대해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당신의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 뒤에 당신은 죄를 기꺼이 버릴 태세가 되어야 하고 당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버리고자 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전심을 다해 건졌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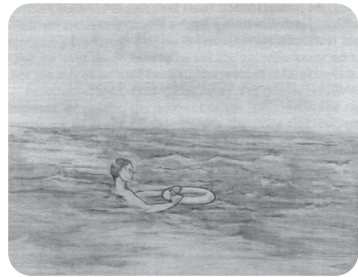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Faith)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아는 것’(Knowing)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둘째 요소는 말 그대로 ‘믿는 것’(Believing)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하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셋째 요소는 ‘신뢰하는 것’(Trusting)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구원자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당신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즉 당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짓값을 치르셨다는 대신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속(代贖)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만심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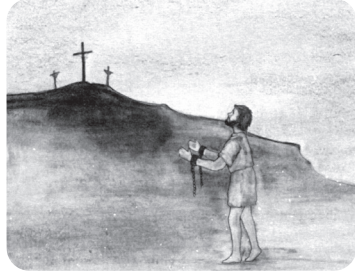


배구에서 한 쪽이 공을 ‘서브’(Serve)하면 다른 쪽이 공을 ‘리시브’(Receive)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공을 서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공을 ‘리시브’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물을 마련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려 해도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의롭게 만드십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판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죄인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그 시간부터



의인으로 부르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칭의(稱義)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한자 ‘의(義)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의(義)입니까? ‘양(羊) 밑에 ‘나(我)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의롭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가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의를 갖고 싶습니까? 불안 전하여 두려운 누더기와 같은 당신의 의입니까(사64:6), 아니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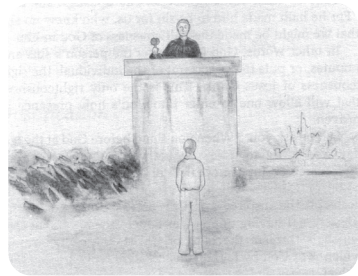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稱義)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의를 소유하게 되며 이러한 완전한 의가 당신 자신의 의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100% 확실한 사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죽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행 17:31)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다(계20:10-22:5). 이제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만큼 읽은 시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

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읽은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다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 주실 것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필요를 보여 주셔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갈망을 주셨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며 가장 좋은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



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에 싫증이 났습니까?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지금 이 시간 죄 용서를 받아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친구로 맞아들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말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먼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들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믿

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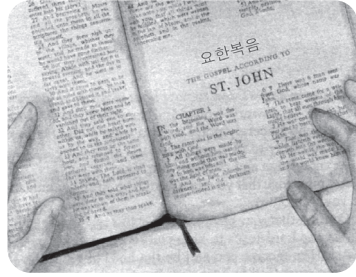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18:9-14).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니까?

구원받은 뒤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책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넷째 책인 요한



복음과 끝부분에 있는 요한일서를 몇 차례 읽기 바라며 또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읽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전체 성경을 꾸준히 정독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경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약 교회는 이 책자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만일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 어려우면 이 책 뒤에 있는 주소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당신은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죄를 씻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 옛사람이 죽었고 묻혔으며 새사람으로 살아났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는 종종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때마다 다음의 글을 읽고 성경 말씀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갑판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와 몹시 대화를 나누고 싶었네. 자네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예, 저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좀 교만한 말이 아닌가? 사실 나도 한때는 성실하게 교회에 다녔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사실 위선자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었지.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가끔 기독교에 어떤 진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하지.”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반장님, 이 배수구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배수구의 둘레는 48센티미터가 아닌가! 그런데 왜 그것을 묻지?”

“반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책에 의거하여 확신할 수 있지. 이 책은 본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이 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늘의 본부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제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과(롬3:23) 지옥의 불 호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21:8). 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롬5:8)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벧전2:24).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이 말씀대로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장차 있을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교만이겠습니까?”



4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1.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끝을 맞는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영적인 생명이 신자의 죄악 된 삶이나 믿음의 변화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지부를 찍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려면 끝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2. 영존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라(요5:24).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존하는 생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간에 끝을 맞는다면 그것은 그 단어의 분명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영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은 아무리 오랜 후에라도 끝을 맞아서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영존하는 생명이 아니다.

3.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9).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뜻은 당신의 구원을 보존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4. 당신은 이미 천국에 예약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1:4)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의하면 이 상속에는 영존하는 생명도 포함되어 있다.

5. 당신이 상속받은 구원은 썩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1:4)

당신이든 사탄이든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을 부패하게 만들 수 없다.

6. 당신이 상속받은 구원은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1:4)

당신이든 사탄이든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더럽혀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을 더럽힐 수 없다.

7. 구원에 관한 한 당신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엡1:13)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전능하신 분에 의해 봉인된 것을 깨뜨릴 수 없다.

8. 성령님은 당신이 부활 혹은 휴거될 때까지 당신을 봉인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구속의 날이란 신자인 당신이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때를 가리킨다.



9. 성령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요 14:16-17).

죄인이 구원받을 때 신자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님의 내주는 영구적인 것이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10. 당신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시37:28).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성도'(saints)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분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11. 당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구원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육적 출생에 비유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부르셨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분의 이러한 비유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12.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
려 하심이니라(엡2:10).

창조자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이 창조되지 않은 상
태가 될 수는 없다.

13. 당신은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두 배는 더 안전하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었졌는데 그의 어깨[단수]
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9:6).

또 그가 그것을 찾으려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
았노라, 하리라(눅15:5-6).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쪽 어깨'(shoulder)에 전 우주의 정권을 지
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분의 '양쪽 어깨'(shoulders)에 구원받은 자
를 메고 계신다고 묘사한다. 성경의 계산법에 의해서 당신은 전 우주 정권이 안
전한 것보다 두 배는 더 안전하다.

14. 당신은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4:18).

이것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다. 그분께
서 사도 바울을 보존하신다면 당신도 보존하실 것이다.

15.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보고 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5).

당신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인가?

16.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당신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하셨다면 당신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17.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기에 행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롬3:28).

미래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에 의해서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는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 행위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

에서 난 것이 아니다.

18. 당신은 당신의 일들을 이미 그친 상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히4:10).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사역을 의지할 때 당신은 구원을 위한 혹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모든 노력'에 의지하는 행위를 이미 그쳤다.

19.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수 없으리라(롬8:38-39).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묘사한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바로 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4:16).

미래에 지을 어떤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장래 있을 것들' 곧 미래의 어떤 일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다. 사탄 혹은 심지어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까 봐 걱정이 되는가? 성경이 어떤 창조물이라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귀와 더불어 당신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한번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

20.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욘2:9).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전3:14).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당신을 구원한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21. 당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당신의 영원한 혼을 주님께 맡길 경우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그날까지 당신을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22. 하나님은 당신이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만일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정죄에 이른다면 이 약속은 거짓이다.

2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7-28).

그분께서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지를 조건으로 해서 위와 같이 약속하지 않았음에 주목하라. 분명히 그분께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4. 당신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셔서 돌보도록 하신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쫓아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다.

25.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이 구절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잃어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요일4:7). 당신이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는

가? 당신이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26.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감싸여 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어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버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다.

27.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감싸여 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29-30).

이것은 이중 안전 보장이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아들 예수님의 손안에 이중으로 싸여 있다. ‘아무도’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수 없다.

28.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고 언제까지나 그분의 양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7-28).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은 돼지로 묘사한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고후5:17) 그들은 양으로 묘사된다. 개가 양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해서 양 측 구원받은 사람이 개 측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은 당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9. 구원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시편 136편은 26회에 걸쳐서 ‘그분의 공흠이 영원하도다.’라고 기록한다. 당신의 구원은 그분의 공흠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공흠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30.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아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약속하셨다(요6:47).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므로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31. 당신의 모든 죄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미7:19).

내가 네 범법들을 뿔뿔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사44:22).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사38:17).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17).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등과 같은 이 모든 표현은 당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증언한다.

32. 성경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는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에 대한 진술이다.

3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영화롭게 된 것으로 여기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30).

어떻게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34. 당신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당신의 새로운 출생은 썩지 않을 씨에 의한 것이기에 사탄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 출생을 썩게 만들 수 없다.

35.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골3:4).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곧 당신의 미래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만이 위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미리 약속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다.

36.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3:3).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당신의 자연적 생명은 죽었다. 이제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탄이 찾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 숨겨져 있다.

37. 당신은 죄를 향해서 죽어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롬6:2)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롬6:7).

분명히 당신은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다. 위의 구절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죄가 미치는 영원한 효력으로부터 죽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8. 주님께서 현재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므로 당신은 안전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히7:25)

주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므로 당신의 구원은 끝까지 즉 그리스어의 의미대로 ‘완전히 끝까지’ 이른다.

39.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을 끝마치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당신의 삶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40. 당신의 구원은 주님께서 얻어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대속을 받았을 뿐이다. 그분께서 한 번 그것을 획득하셨으므로 그것을 영원히 얻으셨다.

41. 당신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골3: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잃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 주 예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결코 종말을 고하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42.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히13:20-21).

언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맺으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당신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43.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유24)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넘어지는 것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3:9). 이것이야말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 넌지시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답변이다.

44.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모든 죄들은 미래의 죄였다.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요10:16).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래에 속한 어느 날 구원받을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양 무리가 아닌 다른 양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당신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사는 동안 지을 죄들은 이천 년 전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시점에서는 모두 미래의 죄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45.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딤후1:2)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신자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요10:28),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다(요3:36).

46.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선물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롬11:29).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without repentance)는 것은 그리스어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한 번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은 다시 무를 수 없는 것이다.

47. 당신은 전가된 의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롬4:6-7)

여기서 의가 ‘있다고 여긴다’는 말은 ‘전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간주에 의해 의가 증여된다는 말이다. 당신의 의가 당신 스스로 번 것이라면 당신이 행하는 불의한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되실 경우에만 당신의 의를 잃을 수 있다.

48.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체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엡 5:30).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사실이며 성경적으로도 글자 그대로도 그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행17:28)는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고후5:17) 이들에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찢어질 수 없다.

49.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히2:2).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끝맺으시는 완성자이시다. 만일 당신이 중도에 어디선가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될 수 없다.

50. 성경의 권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주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말씀도 없도다(왕상8:56).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사40:8).

앞에서 제시한 이유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잃을 수 없는 49가지 이유는 지금 말하는 50째 이유 곧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들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영감으로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신다.

성경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이다. 이 50가지 성경적인 이유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5

구원·전도 예화

창조와 창조자

● 오묘한 지구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가 사람에게 꼭 맞게 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매우 과학적이고도 정교하게 지구를 만드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발췌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

누구라도 지구의 크기를 조사해 보면 곧바로 지구의 부피와 크기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지름이 12,800km가 아니라 11,520km라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 맨틀의 감소로 인해 전 지구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현재의 크기보다 10%만 크거나 작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체 중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2-3°C 만 올라가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도시 문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앞의 이런 도시들은 다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지구의 축은 수직에서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적절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온화한 지방에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만일 이 기울기가 없다면 해가 항상 적도 위에 있게 될 것이고 사 계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작물을 재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가 이 각도 말고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현재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여덟 가지 살인적인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권 위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에서 약 64km 상공(성층권)에 있는 3-4mm 두께의 오존층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 어디에서도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 우주와 비교할 때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이 망망한 우주 속에서 지구처럼 바다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액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극히 예외적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은 별들과 같이 불타는 가스로 구성되어 있거나 우주 공간의 깊은 심연과 같이 얼어붙은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도 정교하게 온 우주는 회전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교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태양 둘레를 회전하고 있음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이 순환 회로 속에서 지구는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완벽하고도 정교하게 지구와 다른 별들을 운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神格)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20).

모든 설계에 설계자가 있으며 모든 법에 입법자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는 말씀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구성 요소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진보된 과학적 선언입니다.

-기쉬 박사(Duane T. Gish, Ph.D.), 생물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모래 위의 발자국

한번은 무신론자인 프랑스 과학자가 아랍인 가이드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인은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잘 모르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런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

그러자 그 아랍인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우리 텐트 옆을 지나간 게 낙타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아랍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태양, 달, 별들이 그분의 발자국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 주전 2000년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욥12:7-10).

그분[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뽁뽁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욥26:7-8).

죄와 죄인

● 죄는 논리적이지 않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등에 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나?” 하며 필쩍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어?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며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쯤에서 전갈이 강한 힘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글래스고우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깔렁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에다 400킬로그램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은혜와 선행

복음을 제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물에 익숙한 아이들보다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데 더 익

숙한 어른들이 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다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설명해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위해 1달 동안 일을 해서 제가 선생님께 백만 원을 드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그것이 보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선생님이 아무 일을 안 했는데 제가 백만 원을 드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이 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여 주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4:3-8).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무엇인가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물, 햇빛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부자나 학자나 귀족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일을 하든지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그저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생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예화는 은혜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삶에 찾아온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열심이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그렇듯이 늘 신앙생활의 기복으로 인해 피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배 후 초청 시간이면 자주 강대상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곤 했다.

한번은 주일 저녁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학생은 그날도 초청의 시간에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이번에 나는 그와 함께 기도한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꼭 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보였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실패하면 어찌죠?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스티브, 나는 너를 아주 잘 알고 있단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

다도 너를 잘 알 거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이 말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게서 실패의 보장이 아닌 꼭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했던 것이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하고 물어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갑자기 깨달아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내 그의 미소는 온 얼굴로 변져나가고 있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 되며 또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시고자 하는 그분의 호의 즉 내 힘이나 선행과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

만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사람의 선행의 가치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가 있었습
니다. 어느 날 그 강아지가 밖에서
놀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소
갈비뼈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강아지에게는 그것이 대단



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조금 붙어 있는 살 조각, 힘줄 등을 보니 침이 꿀꺽 넘어갔지만 그날 강아지는 자기 주인에게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겠다고 작심하고는 당장에라도 뜯어먹고 싶은 욕구를 꼭 참으며 갈비뼈를 집안 방에 몰어다 놓고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난 후 주인이 오자 강아지는 칭찬을 듣기 위해 그 갈비뼈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상한 눈초리로 강아지를 바라보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걸 왜 집으로 가져와서 난리야! 집 안이 지저분해졌잖아!”

강아지에게는 그 더러운 갈비뼈가 보물이지만 주인에게는 더러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네 마음은 알지만 다시는 이런 것 가져오지 말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먹고 놀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천 원을 주면서 빵을 사 먹으라고 하면 대개 순진하게 “고맙습니다.” 하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돈을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왜 돈을 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등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른이 되면 이미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거저 준다고 하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느냐고 자꾸 묻습니다.

● 이미 전쟁은 끝났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을까 봐 30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구조를 받은 한 일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공포와 위험 속에서 떨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구출되어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알기만 하면 곧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거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큰 은혜가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전파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개 함과 같으니라(롬10:15).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험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험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땀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

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록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이사야서 59장 1-2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자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설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자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영존하는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십시오!

▶▶ 성경지킴이 www.KeepBible.com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로이드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승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제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재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지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 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정동수 감수,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티
11.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2.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성경의 역사 :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세상을 바꾼 책(KJB 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21. 재림과 휴거 :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헨리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2.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23. 구원열차 구원방주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4.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그리스도예수안에
25.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6.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잭슨 외 저, 고정인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7.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8.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9.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킹제임스 흠정역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2011
400주년
기념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필전·무디·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에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르도우, 리 톰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김제임스 성경 시리즈 3권 사무엘 길, 베틀 외

김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김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출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엠알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수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철저히 비교분석한 책. 김제임스 성경의 무오성과 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출정역이 가장 정확한 한글 성경임을 입증.

성경 신자들의 글모음 김재욱 외 9인

김문수, 김용욱, 김재근, 김재욱, 김학준, 노영기, 이은희, 정성권, 진미희, 홍승현 등 성경 신자들이 쓴 풍성한 읽을거리.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책순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안정한 종교를 대비시켜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앙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구원 교리와 신앙 상식, 성경 교리, 칼럼, 세미나 자료 등을 수록. 지식보다 상식이 통하며,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김재욱

바르게 사고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색의 글모음. 신앙칼럼과 성경분석, 기독교와 사회 문제, 킹제임스 출정역 변화 등 수록.

구원열차 구원방주 김재욱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가 무너지는 세대를 위해 구원열차 노래가사를 따라가면서 구원의 영속성 교리를 설명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증명한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 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실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킹제임스 출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출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건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